2026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초등학교 안내서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부모, 학부모가 되다





2026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초등학교 안내서

부모, 학부모가 되다





2026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초등학교 안내서

1학년 학부모님께

초등학교 입학은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사회를 향하여 내딛는 가장 의미 있는 그 첫 발걸음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공존하실 겁니다. 학습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 텐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지?"

막막한 마음이 드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부담감에 초등학교 입학의 설렘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느끼는 모든 감정은 아이를 향한 사랑과 기대로부터 나온 것이니 부모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학부모의 자리에서 교육적으로 바르게 표현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며 주도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2026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초등학교 안내서'는
학부모로서 삶을 시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조력자의 관점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한 자료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교육의 주체로서 학교교육을 이해하고 스스로 성찰하며 학부모상을 정립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이 안내서는 1학년에 입학하여 적응하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교생활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부 **'즐거운 학교생활'** 에서는
학부모님이 자녀에게 읽어주고 함께 놀이하며 자연스럽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학교에서의 배움과 어울림을 살펴보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생에 초점을 두고 1학년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교육활동에 대해 안내합니다.

2부 **'슬기로운 학부모생활'** 에서는
부모 자존감과 자녀 교육관을 성찰하고 공감적 의사소통에 기반하여 가정·학교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의 다양한 영역들을 안내하여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교육에 참여하고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과 다양한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본 안내서를 활용하면

학생은 입학에 대한 설렘으로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소통하고 인성에 있어 자존감을 세워나가며 학습에 있어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학부모는 자녀와 학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녀에게는 풍부한 사랑이 담긴 정서적 지원과 기초적인 학습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또한 학교와 교육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학부모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학부모에게는 교육의 동반자로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육공동체가 협력하여 우리 아이들을 자기주도적이고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게 하는데 교육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아이를 교육하는데 있어, 교육공동체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발견하고 확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바로 부모님의 따뜻한 믿음과 격려입니다. 우리 아이가 사회를 향하여 내딛는 그 첫 발걸음을 응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새로운 시작을 앞둔 모든 부모님과 1학년 학생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활용하세요!]



◆ 1학년 학생이 알면 좋은 내용에 표시된 아이콘입니다.
◆ 학부모님이 자녀에게 읽어주시거나 함께 놀이로 배울 수 있습니다.



◆ 학부모님이 알면 좋은 내용에 표시된 아이콘입니다.
◆ 학부모님이 자녀의 학교생활을 위해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을 주실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학부모님이 살펴보실 수 있는 영상 및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쉽게 링크나 QR로 제시해 놓았습니다.

CONTENTS

Ⅰ. 즐거운 학교생활

01 (성찰)
**학생이 되는 나!
새로운 출발**

1. 초등학교 알아보기 ····· 08
2. 몸과 마음 준비하기 ····· 14
3. 1학년 새로운 시작 약속하기 ····· 16

02 (학습)
**신나는 배움!
행복한 성장**

1. 하루 생활 알아보기 ····· 18
2. 학교 공간 살펴보기 ····· 20
3. 1학년 공부하기 ····· 22

03 (인성·사회정서)
**함께 어울림!
우리들은 1학년**

1. 바른 생활 실천하기 ····· 24
2. 스스로 공부하기 ····· 29
3. 사이좋게 지내기 ····· 31

04 (건강·안전)
**안전한 생활!
건강한 우리**

1. 몸 튼튼하게 생활하기 ····· 36
2. 마음 건강하게 돌보기 ····· 38
3. 안전하게 생활하기 ····· 40



Ⅱ. 슬기로운 학부모생활

01 (성찰)
학부모로서의 나! 새로운 시작

1. 부모 자존감 알아보기 ····· 48
2. 자녀 교육관 살펴보기 ····· 51
3. 공감적 의사소통 하기 ····· 53

02 (가정교육)
우리 아이! 학생답게

1. 아이 성향 및 기질 이해하기 ····· 55
2. 학교생활 기초 다지기 ····· 60
3. 건강한 가족문화 만들기 ····· 64

03 (학교교육)
학교 이해! 진정한 학부모

1. 1학년 교육과정 이해하기 ····· 67
2. 안전한 학습환경 만들기 ····· 72
3. 학교 행정 정보 알아보기 ····· 87

04 (학교협력)
소통과 동행! 교육공동체

1. 학교교육 참여하기 ····· 90
2. 건강한 소통 함께하기 ····· 94

◆ 참고문헌 ◆ 주요 키워드 모음

PART

즐거운 학교생활

❶ (성찰) 학생이 되는 나! 새로운 출발 08
❷ (학습) 신나는 배움! 행복한 성장 18
❸ (인성·사회정서) 함께 어울림! 우리들은 1학년 24
❹ (건강·안전) 안전한 생활! 건강한 우리 36

2026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초등학교 안내서

I

부모, 학부모가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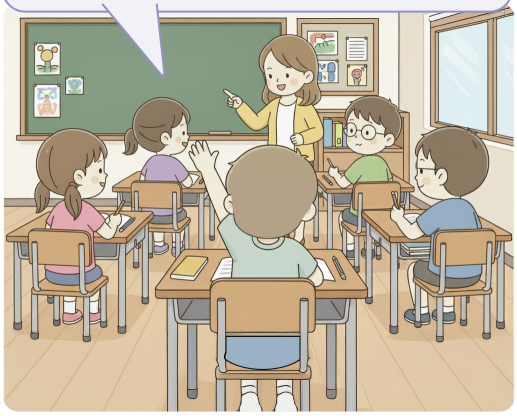


01 (성찰) 학생이 되는 나! 새로운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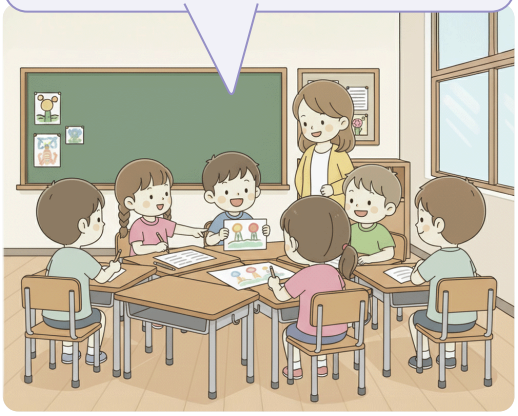
1. 초등학교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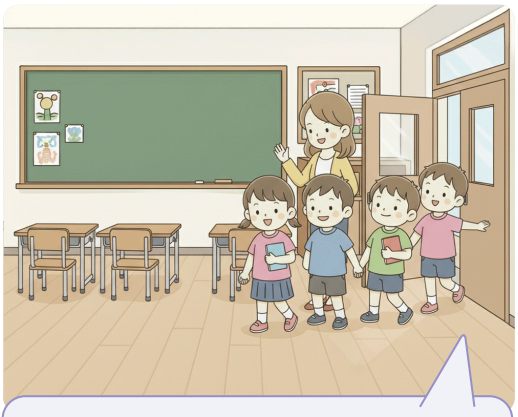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1학년 학생이 되는 것을 축하합니다. 학교는 즐겁고 재미있는 곳이랍니다. 학생이 되어 새롭게 출발하는 첫 발걸음으로 초등학교 생활을 알아볼까요?

지금은 40분 동안 국어 수업을 한대요.
초등학교에서는 시간에 맞춰
여러 과목을 배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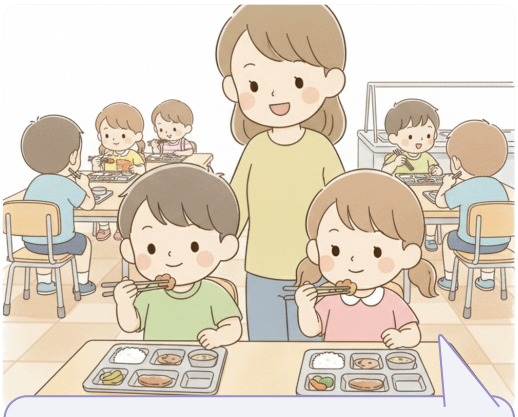


수업 시간에는
친구들과 함께 놀고 생각을 나누어서
정말 재미있어요.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에 다녀오고
다음 수업도 준비해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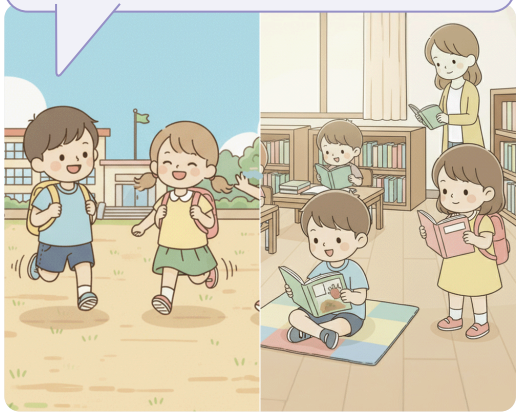


급식 시간에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바르게 쓰고,
먹은 뒤에는 스스로 정리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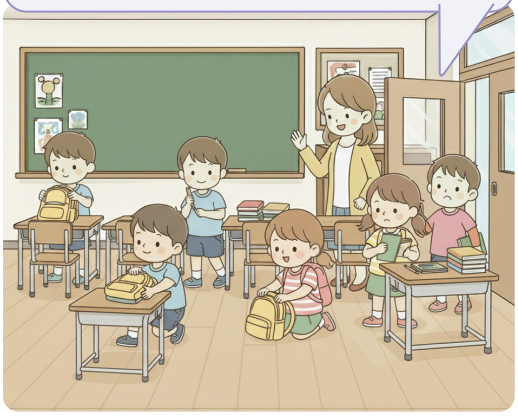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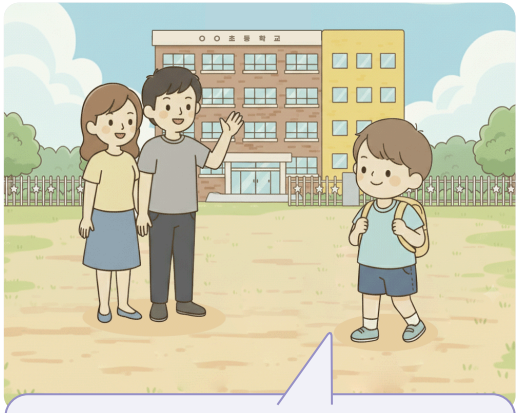
걱정하지 마세요!
1학년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천천히 도와주신 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해내고, 친구들과 도우며 초등학교 생활을
즐겁게 시작할 수 있어요.

친구들과 책도 읽고
선생님들도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즐거워요.



수업이 끝나면
책상과 사물함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준비물도 스스로 챙길 수 있어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여러가지를 배워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 스스로 학교도 갈 수 있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도 너무 재미있어요.
오늘은 또 무엇을 배울까요?

초등학교는 시간표가 정해져 있어요.



- 학교는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다양하고 재미있는 수업이 진행돼요.
- 1교시에는 국어, 2교시에는 수학, 3교시는 통합교과처럼 시간표가 정해져 다양한 과목을 배울 수 있어요.
- 수업 시간은 한 교시에 40분인데, 앉아서 공부만 하는게 아니라 노래도 배우고, 놀이도 하며 재미있게 배워요.
-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도 정해져 있어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밥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학부모

- 하루일과를 시간대별로 나누어 그림이나 스티커로 표현한 나만의 시간표를 만들어 봅니다. 하루를 계획하고 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자녀가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행동했을 때 긍정적인 칭찬을 해줍니다.
- **시간 지키기 모험 놀이**를 해보면 좋습니다.

시간 지키기 모험 놀이

학부모

자녀와 함께 시간을 지키는 활동을 모험 이야기처럼 꾸미면 즐겁게 시간을 익힐 수 있습니다. 시간을 지킬 때마다 칭찬이나 보상을 주면 아이가 시간을 관리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1

지금은 준비의 성문을 통과하는 아침 준비 시간이야!

가방 챙기기 완료, 출발 준비 완료!



2



지금은 독서의 숲에 들어가는 시간이야!

독서 준비 완료, 책 모험 시작!

3

정리를 방해하는 용을 물리쳐라!

정리 마법 얍!!



4



오늘의 시간 영웅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와, 이제 시간을 잘 지킬 수 있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 초등학교에서는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많아져요.
- 준비물을 챙기고, 사물함을 정리하고, 책상도 정리하고, 화장실도 혼자 다녀와요.
- 급식은 줄을 서서 먹고, 젓가락과 숟가락을 사용해야 해요.
- 스스로 하는 게 점점 많아질수록 '나도 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생겨요.

- 젓가락 사용법과 스스로 식사 정리하기를 함께 연습합니다.
- 화장실 혼자가기를 연습하면 좋습니다. 남자아이는 엉덩이가 보이지 않게 바지를 내려 소변을 보는 법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 자녀가 스스로 해냈을 때에는 과정에 대한 칭찬으로 자녀의 자신감을 북돋아 줄 수 있습니다.
- **정리하기 빙고 놀이**를 해보면 좋습니다.

정리하기 빙고 놀이

자녀와 함께 정리해야 할 일을 9칸 빙고판에 적고, 한 가지를 마칠 때마다 스티커를 붙이거나 확인해 줍니다. 놀이처럼 자녀가 스스로 정리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스스로 정리하고 빙고 칸을 채워보자!

2



책도 착착, 연필도 착착

3



좋아! 한칸 채웠어.

우와. 빙고판이 완성된다

책상 위 책 정리하기	연필, 지우개 필통에 넣기	색연필 제자리에 정리하기
가방에 준비물 챙기기	서랍 정리하기	쓰레기 휴지통에 버리기
물통 정리하기	교과서 차례대로 정리하기	의자 정리하기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어요.



- 초등학교 1학년 수업에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시간과 활동이 있어요.
- 서로를 알아가는 친해지기 활동, 짝 활동, 모둠 활동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귈 수 있어요.
- 유치원 친구와 다른 반이 되어도,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즐거움도 생겨요.
- 쉬는 시간, 급식 시간, 방과 후 시간 등 다양한 시간에 친구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아요.

학부모

- 다른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기, 다른 사람의 말에 고개 끄덕이며 대답해 주기, 친절하게 말하기를 함께 연습해 보면 좋습니다.
- 친구와 함께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학교의 다양한 생활 장면에서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을 역할 놀이로 함께 연습해 보면 좋습니다.
- **인사 릴레이 놀이**를 해보면 좋습니다.

인사 릴레이 놀이

학부모

자녀와 부모님이 돌아가며 서로 다른 인사말을 이어가는 놀이입니다. 다양한 인사말을 계속 이어가며 밝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사 릴레이 놀이 시작해볼까? 계속 다른 인사말로 인사를 이어가는 거야.

1



2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멋지시네요.

오늘도 신나요.

즐겁게 지내요.

행복한 하루예요.

3



4



인사 릴레이 성공!

성공!

초등학교에서는 배움의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 초등학교에 가면 처음 배우는 것들이 많아요.
- 한글을 읽고, 쓰기를 하면서 한글을 더 잘 알게 돼요.
- 수학 시간에는 덧셈과 뺄셈도 배우고, 미술 시간에는 멋진 그림도 그려요.
- 운동장, 도서관, 컴퓨터실처럼 새로운 공간도 경험할 수 있어요.

◆ 자녀가 초등학교를 기대할 수 있도록 “이제 책을 스스로 읽을 수 있겠구나!”, “넓은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있겠구나”처럼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 학교에서 새롭게 배우는 것들을 집에서도 함께 해보면 더 자신감 있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처음 하는 경험에 서툴러도 격려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한글 탐정 놀이**를 해보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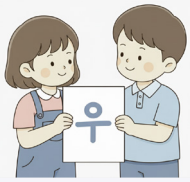
한글 탐정 놀이

놀이처럼 배운 것을 복습해 보면 좋습니다. 종이에 적힌 글자를 보여주고 집안에서 같은 글자를 찾아보게 합니다. 읽기 능력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한글 탐정 놀이!
이 글자를 집에서 찾아보자.

좋아요.

1



2



여기 있어요!
종이에 있는
글자랑 똑같아요.

‘우’를 찾았네.
정답!

‘학’도
찾았어요.

탐정 실력이
굉장한걸!

3



4



한글 탐정,
한글 찾기 성공!

와! 성공!

2. 몸과 마음 준비하기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몸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체크리스트를 확인해보고, 몸과 마음이 준비되었는지 알아볼까요?



학생

학교에서는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해요. 선생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선생님이 보여주시는 내용도 잘 봐야해요. 키, 몸무게, 눈, 치아, 귀를 병원에서 미리 확인해봐요. 건강한 초등학교 생활을 위해 몸 건강을 미리 확인해야 해요.

학부모

- 입학 전에는 시력, 청력, 키, 몸무게, 발 크기 등 성장 발달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 시력 이상은 학습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취학 전 안과 검진이 권장 됩니다.
- 정기 건강검진과 치과 검진을 통해 충치, 소아비만, 척추측만증 등 예방 가능한 질환을 미리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청에서 권장하는 만 6세 아동 대상의 취학 전 건강검진(시력, 청력, 치아, 성장도 검사 포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

학교는 많은 친구들이 함께 지내기 때문에 아프지 않으려면 예방 주사를 맞아야 해요. 예방접종을 마치면 학교에서 친구들과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학부모

- 초등학교는 단체생활 공간이므로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아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 예방접종은 여러 사람의 건강을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nip.kdca.go.kr)'에서 접종 이력을 확인하고 누락 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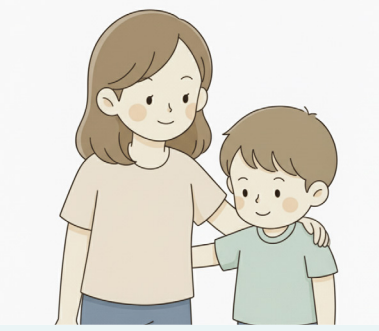
학생

학교에는 재미있는 활동도 많고, 새 친구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선생님께서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시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학교는 우리를 기다리는 신나는 곳이에요.

학부모

- 부모님의 긍정적인 언어 사용은 자녀가 학교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적응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 "학교 가면 혼나"와 같은 부정적인 말은 아이에게 학교를 통제와 처벌의 공간으로 생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학교에서는 재미있는 활동도 많고, 친구들과 함께 배울 수 있어"와 같은 긍정적인 말은 자녀에게 학교를 재미있는 공간으로 생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다독여요



학생

처음이라 무섭고 떨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학교에는 도와주는 친구도 있고, 선생님도 계세요.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점점 편해질 거예요. 조금씩 해내다 보면 분명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학부모

- 초등학교 입학 초기, 자녀들은 낯선 환경과 부모와의 분리로 인해 두통, 복통, 무기력, 등교 거부 등의 분리불안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 단순히 "괜찮아"라고 하기보다 "처음은 낯설 수 있지만, 학교에는 선생님이 도와주시고 재미있는 활동도 많아"와 같이 공감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만약 분리불안이 오래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준다면, 놀이치료나 가족상담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3. 1학년 새로운 시작 약속하기

초등학생이 되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1학년 새로운 시작을 위해 약속해야 할 것들을 알아볼까요? 놀이 규칙에 맞추어 새로운 시작을 약속해 보아요!

출발

1학년 새로운 시작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기

일찍 일어나서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가 더 즐거워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요.

내 물건은 내가 챙기기

필통, 공책, 준비물 등 내 물건을 스스로 챙겨야 해요. 물건에 이름을 붙이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 물건을 챙겨요.

먼저 인사하고 웃으며 말하기

친구들과 선생님을 보면 먼저 인사해요. 밝게 인사하고 웃으면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어요.

앞으로

책상과 가방 정리하기

책상과 가방이 정리되어 있으면 물건을 바로 찾을 수 있어서 공부할 때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수업시간에 바르게 앉기

수업 시간에 바르게 앉으면 선생님 말씀도 더 잘 들리고 집중력도 높아져요.



학부모

스스로 하는 습관을 놀이처럼

스스로 해보는 작은 실천들이 성공 경험을 만듭니다.

자녀가 처음 접하는 상황에서 더 자신감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놀이처럼 연습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림책이나 이야기로 미리 상상하고 행동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물: 주사위, 말 2개

스스로 화장실 처리하기

소변이나 대변을 보고 물을 내리고, 손을 깨끗하게 씻어요. 학교 화장실은 집과 다를 수 있지만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어요.

쉬는 시간에 안전하게 놀기

쉬는 시간은 신나게 놀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복도에서 뛰거나 위험한 장난을 치지 않아요.

뒤로

학생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놀이하며 확인해 봐요. 주사위를 던져 멈춘 칸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해 보세요.

2칸 가세요

수업 중 손들고 발표하기

선생님께서 질문하실 때 아는 것이 있으면 용기 내서 손들고 발표해 봐요. 틀려도 괜찮아요.

친구 물건 소중히 다루기

친구 물건도 내 물건처럼 소중히 다루어야 해요. 친구의 허락 없이 만지거나 가져가지 않아요.

숙제는 스스로 하기

학교에서 내주시는 숙제는 배운 것을 다시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어렵더라도 혼자 해내면 뿌듯해요.



학부모

학교는 즐거운 배움의 공간

학교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살펴보면 자녀의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잘하고 있다는 칭찬은 자녀의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학교생활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학교에서 새 친구도 만나고, 그림도 그리고, 다양한 것을 배운다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심어주면 좋습니다.

학교 규칙 잘 지키기

학교는 많은 친구들이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는 곳이에요.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학교 규칙을 잘 지켜요.

선생님 말씀 잘 듣기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손을 들고 질문하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1칸 가세요

바른 자세로 책 읽기

책을 읽을 때 허리를 펴고 바른 자세로 앉아요. 너무 가까이 보거나 누워서 보면 눈이 나빠질 수 있어요. 바른 자세로 책을 읽으면 글씨도 잘 보여요.

학교에서 만나는 어른들께 인사하기

학교에는 도와주시는 어른들이 많아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학교 지킴이 선생님 등 어른들께 밝게 인사해요.

점심시간 예절 지키기

급식을 할 때 줄을 잘 서고, 음식을 남기지 않고 골고루 먹어요. 이야기하지 않고 조용히 먹어요.

02 (학습) 신나는 배움! 행복한 성장

1. 하루 생활 알아보기

초등학교는 하루일과가 시간표에 따라 정해져 있어요. 수업은 40분씩 이루어지며, 국어, 수학, 통합교과 등 여러 과목을 차례대로 배우게 돼요. 초등학교의 하루 생활을 알아볼까요?



등교	학교는 보통 아침 9시까지 가요. 교문 앞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인사하고 교실로 들어가요. 교실에 도착하면 책가방을 정리하고, 조용히 책을 읽거나 준비 활동을 해요.
오전 수업	수업은 40분씩 이루어지고, 수업 사이에는 10분 쉬는 시간이 있어요. 1학년은 처음에 4교시 수업으로 시작하고, 나중에는 5교시까지도 해요. 국어, 수학, 통합교과처럼 재미있는 과목을 배워요. 놀이도 하고, 글자도 배우며 재미있게 공부해요.
쉬는 시간	쉬는 시간에는 친구들과 이야기하거나, 물을 마셔요. 또 화장실에 다녀오고, 다음 수업을 준비해요. 책을 읽거나 그림 그리기, 색종이 접기 같은 활동도 할 수 있어요. 쉬는 시간은 다음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점심 시간	급식 시간에는 차례에 맞추어 줄을 서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해서 스스로 밥을 먹어요. 남은 반찬을 정리하고, 식판을 스스로 정리해요. 식사를 한 후에는 양치도 하고 쉴 수 있어요.
오후 수업	일주일 중 5교시까지 수업을 하는 날도 있어요. 보통 점심을 먹고 5교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힘이 들 수도 있어요. 점심 시간에 몸을 움직이는 간단한 운동도 하면서 오후 수업에 집중해야 해요.
하교	수업이 끝나면 선생님 안내에 따라 교실을 정리하고, 알림장을 쓰고, 가방을 챙겨요. 집에 갈 때에는 안전하게 길을 건너야 해요. 신호등을 지키고, 낯선 사람과 말을 하지 않고 조심히 집에 가야해요.
방과후·돌봄	수업이 끝난 뒤에는 초1-2 맞춤형, 수익자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요. 미술, 요리, 체육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과 함께 교실에서 놀이도 하고, 간식도 먹으며 수업을 기다릴 수 있어요.



등교

- 자녀와 함께 집에서 학교까지 통학로를 미리 걸어보며, 안전한 길을 익히게 해주면 좋습니다.
- 스스로 가방을 챙기고 학용품, 준비물에 이름을 붙이는 등 혼자 해보는 연습을 통해 독립적인 생활 습관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오전 수업

- 입학 초기에는 4교시 수업으로 운영되며, 한글 해득 교육 강화를 위해 국어 시수가 늘어났습니다.
- 자녀의 흥미를 높이고 학습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과와 연계한 실생활 중심 활동이 많습니다.

쉬는 시간

- 선생님이 화장실에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혼자 화장실 다녀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 자녀가 쉬는 시간에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다면 '하루 1명 친구와 함께 놀기' 같은 부모-자녀 미션도 해볼 수 있습니다.

점심 시간

- 스스로 밥을 먹고 정리하는 연습을 집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 먹을 만큼 덜어 먹는 습관, 식판 들기, 남은 반찬과 식판 정리하기, 양치질까지 연습하면 좋습니다.
- 알레르기나 건강상 먹지 못하는 음식은 미리 선생님께 꼭 알려주어야 합니다.

오후 수업

- 5교시 수업은 보통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40분에서 2시 사이에 마칩니다.
- 하교 후에는 짧은 낮잠, 자유 놀이 시간 등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교

- 실제 생활 속에서 횡단보도 건너기, 신호 지키기, 낯선 사람 대처법 등과 같은 안전한 귀가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반복적인 연습이 중요합니다.
- 자녀가 학교에서 겪은 일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과후·돌봄

- 정규 수업 이후에도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여러가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학교마다 신청 방식과 시간 운영이 다르므로,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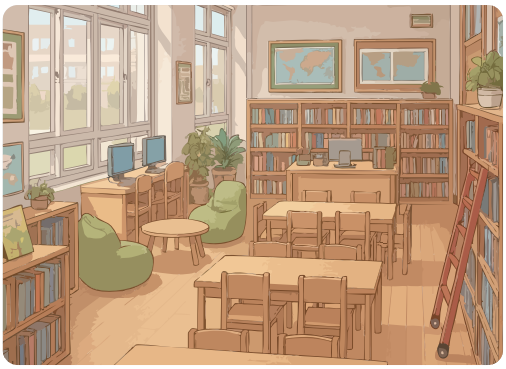
2. 학교 공간 살펴보기

학교는 즐거운 배움이 일어나는 다양한 공간이 있어요. 학교의 넓은 공간과 여러 시설들을 알아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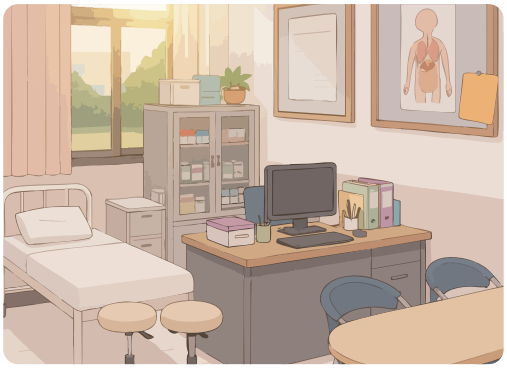
화장실

- 소변이나 대변을 보는 깨끗하게 사용해야하는 공간 이에요.
- 화장실에서는 줄을 서서 기다리고, 문을 두드린 다음 들어가요.
- 사용한 후에는 물을 꼭 내려서 깨끗하게 해야 해요.



도서관

- 멋진 그림책과 재미있는 이야기책이 가득한 곳이에요.
- 조용히 책을 읽어야 해요.
- 책을 빌리거나 돌려줄 때에는 약속을 잘 지켜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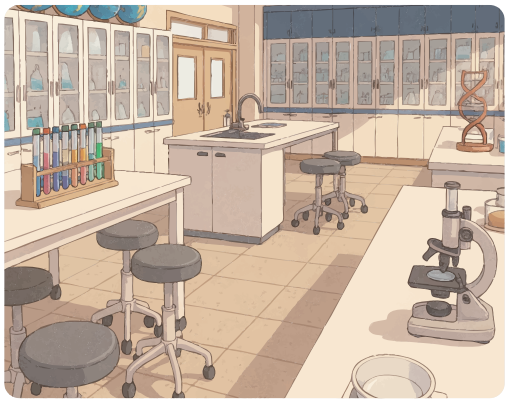
보건실

- 아플 때 쉬거나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 아프거나 다쳤을 때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보건실로 가야 해요.
- 보건실에 가서는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말해요.
- 교실로 돌아와서는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해요.



운동장/체육관

- 운동장과 체육관은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하는 곳이에요.
- 정해진 안전 규칙을 지켜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 운동 기구에 매달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특별교실(과학실, 음악실, 컴퓨터실 등)

- 학교에는 우리 반 교실 말고도 특별한 교실들이 있어요.
- 과학실에서는 신기한 실험을 해요.
- 음악실에서는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 연주를 해요.
- 컴퓨터실에서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요.



교무실, 교장실, 행정실

- 교무실은 교감선생님과 선생님들이 계신 곳이에요.
- 교장실은 교장선생님께서 계신 곳이에요.
- 행정실은 학교의 살림을 맡아 보는 곳이에요.
- 선생님들께서 계신 곳이니 예의바르게 행동해요.



복도와 계단

- 학교에서 이동할 때 사용하는 것이에요.
- 복도나 계단에서 뛰면 크게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 오른쪽으로 걸으면 친구랑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
-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난간을 잡고 한 칸씩 이동해요.



급식실/교실급식

-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는 곳이에요.
-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음식을 남기지 않아요.
- 밥을 다 먹은 후에는 자기가 앉은 자리를 깨끗이 정리하고, 식판과 숟가락, 젓가락을 제자리에 가져다 두어요.

3. 1학년 공부하기

1학년이 되면 처음 배우는 것들이 많아요.
6학년 언니, 형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로 1학년 공부를 미리 알아볼까요?



국어 시간에는 무엇을 공부하나요?



말하고, 읽고, 쓰는 걸 배워.
책을 소리내어 읽으면 더 잘 기억할 수 있어. 또 내 생각을 또박또박 말하면 친구들이 잘 들어주지.
글씨도 바르게 쓰기 위해 글자의 모양과 순서에 맞게 쓰는 법을 배운단다.



매일 한 편의 동화책을 큰 소리로 읽도록 하면 좋아요. 부모님 앞에서 책을 소리내어 읽으면 발음, 띄어 읽기에 도움이 됩니다. 자녀들이 말할 기회를 자주 주고, 가족 앞에서 발표해보는 기회를 주면 자신감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책을 읽은 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뭐였어?"라고 질문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수학 시간에는 무엇을 공부하나요?

수학 시간에는 숫자를 세고, 쓰고, 더하고, 빼는 방법을 배워. 놀이처럼 계산 연습을 하기도 해.
긴 문장 안에서 계산할 내용을 찾아서 푸는 연습도 하지.
생각을 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어.





엘리베이터 층수, 시계 숫자, 달력 날짜, 마트의 가격표 등을 보며 자연스럽게 숫자에 익숙해지도록 하면 좋습니다. 주사위, 수 카드, 계산 놀이를 통해 아이가 즐겁게 수학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함께 읽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말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통합교과 시간에는 무엇을 공부하나요?



통합교과 시간에는 학교생활, 친구 관계, 우리 동네, 몸과 마음, 놀이와 예절에 대해 배워.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살펴보고,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모습을 살펴봐.
춤추고, 만들고, 노래하며 몸과 마음이 즐거워지는 활동도 하지.
우리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관찰하는 힘을 기를 수 있어.



주말 산책이나 장보기를 하며 주변을 함께 관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 앞 화단, 길가의 식물을 보며 계절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궁금해 하는 것을 바로 검색해서 알려주기 보다는 “넌 어떻게 생각해?”라는 질문을 던지며 자녀들이 생각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줍니다.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어요?

모둠 활동이나 게임처럼 여럿이 함께 하는 활동이 많아. 그래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같이 힘을 모아야 해. 또, 궁금한 것이 생기면 선생님께 질문하거나 친구와 이야기 나누어 보는 것이 좋아.
수업 시간에 바른 자세로 집중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며 친구와 어울리고 즐겁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단다.





자녀가 학교에서 가지고 오는 작품에 대해 스스로 설명해보고, 어떤 의도에서 만들었는지 듣고 격려해 주면 좋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가 선생님이 되어 학교에서 했던 활동을 함께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과보다 함께했다는 과정, 열심히 참여한 과정을 칭찬해 주며 자녀가 학교생활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03 (인성·사회정서) 함께 어울림! 우리들은 1학년

1. 바른 생활 실천하기

1학년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려면 바른 생활습관이 필요해요. 바른 생활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볼까요?

1) 정리정돈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사용한 물건을 정리하고 내 물건에 이름 쓰기**



학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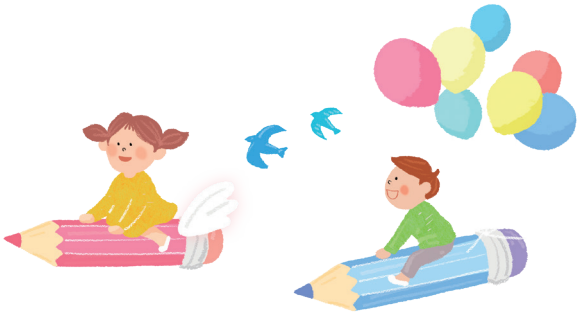
- 물건을 제자리에 두어 잃어버리지 않는 정리정돈 습관이 필요합니다.
- 활동이 끝난 후 정리하는 연습을 하면 학교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 학용품과 개인 물건에 이름을 적어 두면 자신의 물건이 소중하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이름은 보이지 않는 안쪽에 써서 개인정보를 지켜야 합니다.

■ **사용한 물건 정리하고 내 물건에 이름 쓰기**



학부모

-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준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우산을 사용한 후 물을 털고, 돌돌 말아 가지런히 정리합니다.
- 통학로에서 우산이 시야를 가려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투명 우산을 준비합니다.



2) 올바르게 밥 먹는 식습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숟가락, 젓가락 사용법 연습하기



학부모

- 초등학교 급식은 숟가락과 젓가락만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 수 있습니다.
- 집에서 숟가락 사용을 바르게 연습하고, 보조 젓가락을 활용해 익숙해진 뒤 일반 젓가락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바른 식습관 갖기



학부모

- 학교 급식은 정해진 시간 안에 집중해서 먹어야 하며, 부모님이 먹여 주거나 TV를 보면서 먹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 알러지가 있는 음식은 담임선생님께 미리 알려드리고, 편식을 한다면 학교와 집에서 바꾸도록 조금씩 노력해야 합니다.
- 다 먹은 뒤에는 남은 음식을 모아 버리고, 식판, 수저, 젓가락을 조심히 정리해야 합니다.

3) 깨끗하게 생활하는 습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치카치카! 깨끗이 이 닦기**

양치질은 이렇게 해요!



❶ 칫솔에 치약을 콕! 완두콩만큼 짜요.



❷ 치아의 위와 아래 그리고 안쪽과 바깥쪽을 조심조심 부드럽게 닦아요.



❸ 앞니, 어금니 그리고 혀도 살살 닦아서 입속 모두를 깨끗하게 해요.



❹ 다 닦았으면 물로 여러 번 가글해서 치약을 뱉어요.



❺ 마지막으로 칫솔도 깨끗이 씻어서 컵에 세워 말려요.

Tip 자녀에게 양치의 필요성과 사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 초등학교 저학년은 유치랑 영치가 함께 있습니다. 지금이 양치 습관을 만들 중요한 때입니다.
- 밥을 먹고 깨끗하게 양치를 해서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잇몸과 치아를 건강하게 지켜 주세요.
- 내 칫솔, 치약, 물컵은 따로 준비해 두고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합니다.
- 칫솔질은 입안 구석구석 3분 동안 양치 후에는 꼭 헹구도록 안내합니다.

■ 항상 올바르게 손 씻기

올바른 손 씻기 5단계



❶ 손 전체에 물을 묻혀요.



❷ 손에 비누나 물비누를 사용해서 거품을 골고루 묻혀요.



❸ 손 전체를 구석구석 20초 이상 문질러요.



❹ 흐르는 물로 비누 거품이 다 없어질 때까지 헹궈요.



❺ 깨끗한 수건이나 휴지로 닦아요.

■ 화장실 사용법 연습하기



화장실은 미리미리 가고, 다녀온 뒤엔 꼭 손을 씻어야 해요. 만약 실수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선생님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청해요!











- 달라진 화장실에서 뒤처리, 물 내리기, 손 씻기 등을 혼자 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변 습관이 익숙하지 않으면 정해진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가기 힘들 수 있지만,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다녀올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장실을 사용할 때는 휴지를 미리 준비하고, 용변 후에는 변기에 버린 뒤 물을 내리고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또 화장실을 두려워하는 자녀가 낯선 환경에서 긴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임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초등 1학년 생활습관 가정 실천카드]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스스로 생활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돕는 주간 실천 카드입니다.
자녀가 매일 스스로 점검해보고, 부모는 간단한 칭찬이나 격려로 응원해 주세요.

실천 항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을 먹었어요							
준비물을 스스로 챙겼어요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두었어요							
숙제를 스스로 했어요							
TV/핸드폰 시간을 지켰어요							
약속한 생활 규칙을 지켰어요							
감정을 말로 표현했어요							
친구와 사이좋게 지냈어요							
실수해도 다시 해보려 했어요							

2. 스스로 공부하기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은 학교생활의 기본입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1) 스마트한 학습 습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 **반복적으로 연습하면서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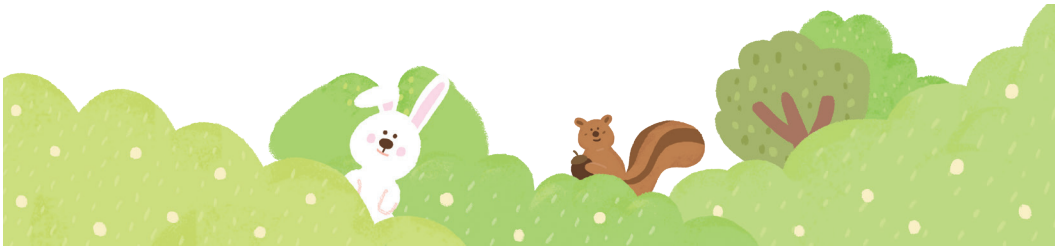
학부모

- 해야 할 일을 규칙으로 정해 반복 연습하고, 눈에 보이는 규칙표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습관을 기르기 쉽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점검하며 일관되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집중력을 키우려면 책상 위 불필요한 물건을 치우고 소음을 줄여야 합니다. 필요한 것만 두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Tip

집중할 수 있는 과제 내주기

- 자녀에게 10분 정도의 해결할 수 있도록 과제를 주세요.
- 30분 정도 소요되는 과제라면 과제의 양을 10분씩 나누고 중간에 쉬는 시간을 주세요.
- 과제를 해결한 자녀가 성취의 기쁨을 느끼는 순간 부모님이 충분히 칭찬해 주세요.
- 자녀가 익숙해지면 점차 시간과 과제를 늘려주세요.



2) 독서 습관은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 규칙적으로 책 읽기

책과 친해지려면 매일 정해진 시간(약 20분)에 책을 읽는 습관이 필요하며, 집중력과 정서적 안정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학교나 학급에서 운영하는 독서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규칙적인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 정독과 다독 실천하기

정독은 책을 깊이 읽으며 어휘력과 이해력, 사고력을 키워 주고, 다독은 여러 책을 읽으며 배경지식과 흥미를 넓혀 줍니다. 두 방법을 균형 있게 함께 할 때 학습 능력과 표현력이 함께 성장합니다.

Tip 책 이야기의 재미 알려주기

- 아이들은 이야기를 좋아하므로 책을 읽어주기 전에 재미있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책 속에 더 많은 재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책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어요.
- 책을 다 읽은 후에는 내용이나 인물의 마음에 대해 대화하며 자녀의 생각을 들어 주세요.
- 읽은 내용을 일상과 연결하거나 활동으로 이어 주고, 칭찬과 격려를 통해 책 읽기를 즐겁게 기억하게 해 주세요.

3) 발표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말하기 연습하기

발표 두려움을 줄이려면 부모님, 인형, 거울 앞에서 말하기 연습을 하고 녹음이나 촬영으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생활 속에서 주문하기, 인사하기 같은 말하기를 시도하며 잘할 때마다 칭찬과 격려를 나누면 자신감이 자랍니다.

■ 소리내어 책 읽기

소리내어 책을 읽으면 호흡, 띄어 읽기, 강조하기를 익히고 말하기 자신감을 기를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번갈아 읽으면 발음과 억양을 배우며 즐겁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Tip 말할 내용 미리 함께 준비하기

- 발표 전에 주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내용을 미리 준비하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 가정에서 대화를 나누며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면 발표의 긴장감을 줄이고 표현력을 키울 수 있어요.

◆ 3. 사이좋게 지내기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원만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공동체 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감정표현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침착하게 대처하기**





- 감정을 성숙하게 표현하는 것은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하는 밑바탕이 되며, 자녀는 부모의 감정 표현을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신의 표현 방식을 돌아보고, 아이의 짜증이나 화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 부모는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존중할 때 자녀의 성숙한 배움이 시작됩니다.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기보다 상황과 사실을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대화하면 자녀의 학교생활이 더 긍정적으로 발전합니다.



툭하면 우는 아이, 원인에 따라 반응하기

첫째, 자녀가 울 때는 마음대로 되지 않아 속상한 것이므로 먼저 그 마음을 받아 주세요. 그러나 요구를 관철하거나 시선을 끌기 위한 울음 등은 바로 위로하지 말고 잠시 모르는 척 두다가 대화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 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흥분이 가라앉고 울음이 그치면 어깨를 두드리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바람직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 함께 얘기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자녀가 우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해주고 속상한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 나 전달법으로 효과적인 감정 전달하기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지지하는 방법

평가	나-전달법
"너는 색상 선택을 아주 잘하는구나"	"네가 칠한 색상이 아주 맘에 드는구나"

다른 사람을 비하하지 않고 싫은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

비하	나-전달법
"그 티셔츠는 잘못 골랐어"	"나는 그런 티셔츠가 맘에 들지 않아"



- 나-전달법은 본인과 직접 관련된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전달법의 활용은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하고 자녀에게 본인을 더 잘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며 궁극적으로는 자녀에게 그들의 마음을 정직하게 표현하도록 용기를 주게 됩니다.

Tip 말할 내용 미리 함께 준비하기

- **긍정적인 나-전달법**

  긍정적인 나-전달법으로 기쁨, 즐거움, 환희, 흥분 등의 감정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나는 어제 네가 전화를 해서 정말 기뻤어. 사실 그때 난 기분이 좀 우울했었는데, 너와 이야기하고 나니까 기분이 한결 좋아졌지 뭐야."

  "네 그림엔 내가 좋아하는 색상이 많구나. 파랑과 녹색, 나는 이 그림만 쳐다 보아도 기분이 편안해지는 걸."

- **나-전달법 사용시 주의할 점**

  행동에 대한 비판, 비난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감정을 전달하지 않도록 합니다.
  상대방을 평가하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기쁘다, 기분 좋다, 반갑다, 행복하다, 흐뭇하다, 즐겁다, 사랑스럽다, 자랑스럽다, 뿌듯하다, 대견하다, 만족하다, 신나다, 근사하다, 멋있다 등

2) 친구들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친구의 입장을 이해하며 공감하기

친구의 말 잘 들어주기

친구의 감정을 헤아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행동을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친구의 말에 경청하려는 자세와 공감하려는 노력이 자녀의 감정을 조절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친구의 감정 인정하기

다른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반드시 그 친구의 생각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나 공감이 어렵더라도 그 감정이 자연스럽다고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대화하기

친한 친구하고만 어울리면 다른 친구를 이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다양한 친구들과도 친하게 인사하며 지냅니다.

친구들과의 공통점 찾기

공통점을 찾으면 공감하기도, 공감 능력을 보여주기도 더 쉬워집니다. 새로운 친구와 대화할 때는 공통점을 몇 가지 찾아보면 대화하기 편해집니다.

Tip 긍정적인 격려를 통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기

- 학교에서 감정을 앞세우면 친구들에게 화를 잘 내는 아이로 보일 수 있어 침착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 아이들은 부모의 말투와 감정 표현 방식을 그대로 배우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 자녀가 화가 났을 때는 억지로 막지 말고 시간을 두어 안정된 후에 대화로 풀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 부모가 자녀의 말을 귀담아 듣고 신뢰를 쌓으면 아이의 태도는 점차 좋아집니다.

3) 자녀가 거짓말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너 거짓말쟁이야!" 라고 지적하기보다 정직한 마음 함께 키우기**



- **거짓말을 했다고 나쁜 아이는 아니에요.**
- **실수해도 괜찮아요. 다시 잘하면 돼요!**
- **거짓말보다 솔직한 마음이 더 멋져요.**
- **다음엔 사실대로 말해 보겠다고 다짐해 보아요.**



- 사람은 누구나 실수로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거짓말쟁이"라고 지적하기보다는 거짓말을 한 이유를 생각해 보고 사실대로 말하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자녀를 끝까지 몰아붙이면 '나는 나쁜 아이구나'라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됩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적절한 훈육이 필요합니다.

Tip 거짓말에 대해 지도하기

- 이 시기의 자녀들은 '하기 싫은 그 순간'을 넘기고자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하기 싫은 숙제를 피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들키지 않으면 같은 거짓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때 바로 야단치기보다는 부모가 알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 한두 번의 거짓말은 용서가 되지만 그 횟수가 잦거나 심지어 제법 능숙하게 한다면 단순히 보아 넘길 일은 아닙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신뢰를 잃을 수 있으므로, 부모는 정직이 가장 큰 이해를 얻는 길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갈등 상황에서도 망설임 없이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녀에게 정직하고 솔직한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말해주세요.

  '양치기 소년'이나 '피노키오', '지각대장 존', '빈 화분'과 같은 동화를 들려주거나 그림책을 보여주면서 거짓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되는지, 정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 서로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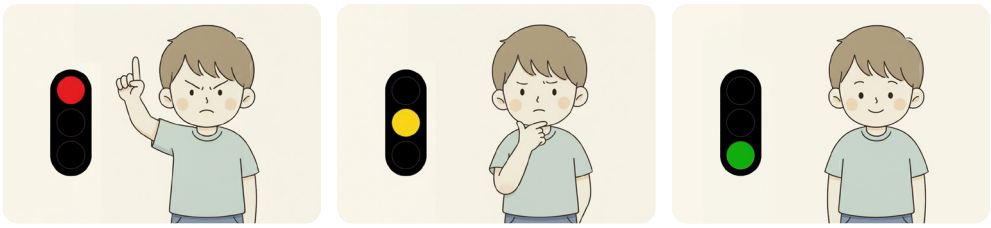
4)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마음 신호등 이해하기**



» 마음 신호등 3단계 표현 방법

1) 멈추기: 말하기 전에 3초를 기다린다.
2) 생각하기: 친구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생각한다.
3) 표현하기: 화내지 않고 차분하게 말한다.



■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 공동체 약속과 규칙 지키기**



학교는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곳이라 규칙과 약속이 필요해요.
교실·복도·급식실·운동장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요.
집이나 동네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연습을 하면 좋아요.

약속을 지켜야
모두가 즐겁고
평화로워요!


교실


복도


급식실


운동장

Tip 놀이를 통해 약속과 규칙을 배워요!

- 간혹 학부모는 아이들의 놀이에 대해 오해와 편견을 가지기도 합니다.
- 자녀들은 놀 권리가 있고, 놀이를 통해 성장합니다.
- 건강한 성장과 균형 발달을 돕는 놀이의 가치를 이해하고 즐겁게 놀이하도록 도와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04 (건강·안전) 안전한 생활! 건강한 우리

1. 몸 튼튼하게 생활하기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1) 학교에서 실시하는 건강 검사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 연중 상시 운영되는 학생건강 검사하기

- 학생건강검사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 및 보호 대책을 지원합니다. 3월 첫 주 건강조사 설문지를 통해 학생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생애주기별 학생 건강검사

- 성장기 학생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기 위하여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는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에서 지정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거나 교내로 찾아오는 출장 검진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학교는 학생 건강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학생의 건강 상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을 계획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초등학교 건강검사 항목**

항목	대상	검사 내용
신체 발달상황	전 학년	키, 몸무게(비만도)
건강조사	전 학년	생활 습관, 병력 등 문진표에 의한 조사
건강검진	1, 4학년	소변검사, 구강 검사, 시력 및 청력 검사 등

- 학교에서는 3~5월에 키·몸무게 등 성장 검사를 하고, 학년별로 건강검진이나 구강검진, 소변·시력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이 밖에도 학생감염병 예방교육, 응급상황 시 대처교육,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환경위생교육, 학생 비만 및 결핵예방 교육 등을 학교교육과정에서 상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Tip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사이트 확인하기**

https://schoolhealth.kr/

2) 건강한 체력을 기르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나요?

■ 학생 건강을 증진시키는 스포츠클럽 알아보기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

- 학교에서는 매년 3~5월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여 측정 결과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체력교실, 스포츠클럽활동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학교스포츠클럽은 학교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의무화된 것으로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통합적 운영계획으로 실시됩니다. 학교장 승인 후 학년별로 원하는 종목을 교육과정 외 17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업 이외의 시간에도 운영

- 예를 들어, 자녀의 학년에서 줄넘기를 학교스포츠클럽 종목으로 결정하였다면, 해당 학년에서는 수업 이외의 시간인 아침 학습준비시간, 점심시간, 방과후 시간 등을 이용하여 신체활동을 강화시켜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도모하고 있습니다.

Tip 학교스포츠클럽 축제와 대회 알아두기

- 학생 또는 교사가 함께 클럽을 편성하여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합니다.
- 동아리로 개설하여 모든 학생이 1종목 이상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 지역연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또는 축제나 대회 등이 운영되기도 합니다.

◆ 2. 마음 건강하게 돌보기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합니다. 속상한 기분이나 화나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마음 건강을 위한 교육활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이해하기**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 2007년부터 학생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4학년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검사를 합니다. 학생 개인의 성격 및 특성에 맞는 양육 정보를 제공하고, 인지·정서·사회성 발달의 어려움을 조기에 파악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나온 학생은

- 학생의 정서적 문제에 대해 심층 검사 및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정서·행동과 관련된 문항에 체크한 내용이 검사도구의 기준점수보다 높은 경우를 말하는데, 집중력 저하나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과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지속적인 관찰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 전문기관의 심층 검사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맞춤형 지원을 위한 선별검사입니다. 정확한 진단은 연계되는 병·의원 등 전문기관의 심층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보호자 동의 하에 이루어지므로 받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학생의 정서적 성장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에 방문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정서·행동 특성검사 지원 절차

1. 초등학교 1, 4학년 전체 학부모 대상 설문 검사 (온라인검사 또는 서면검사)
2. 검사결과 분석 후 전문기관 심층평가가 필요한 학생 파악
3. 2차 전문 검사기관 연계하여 심층평가
4. 관심군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 내 지속관리 및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시 치료 지원

Tip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영상으로 살펴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2bBFtYbD51g

Tip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Wee 프로젝트 살펴보기

마음건강

위(Wee) 프로젝트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해 촘촘한
3단계 Safe-net을 구축해서 작은 고민부터 큰 위기까지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합니다.

1차 안전망	2차 안전망	3차 안전망
학교	**교육지원청**	**지역사회**
위(Wee)클래스	위(Wee)센터	위(Wee)스쿨 가정형·병원형 위(Wee)센터
학생 위기예방 및 학교생활 적응 지원	'진단-상담-치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	심리·정서적 어려움 또는 학교 부적응 등을 겪는 학생 지원

2) 상황에 따라 친구를 어떻게 도와줄까요?

■ **친구의 마음을 살피고, 따뜻하게 도와주는 방법 실천하기**

친구가 속상해 보일 때

- "무슨 일 있어?" 하고 다가가 말을 걸어줘요.
- 속상한 친구는 혼자 있기보다 누군가가 옆에 있어 주면 마음이 조금씩 나아져요.

친구가 화가 났을 때

- "잠깐 쉬자" 하면서 조용한 곳으로 같이 가거나 선생님께 알려줘요.
- 화가 날 땐 바로 말하거나 다투지 말고, 잠시 멈추고 마음을 가라앉히는게 좋아요.

친구가 혼자 있을 때

- "같이 놀래?" 하고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요.
- 친구가 혼자 있을 때 먼저 다가가 주면, 외롭지 않고 기분이 좋아져요.

3. 안전하게 생활하기

행복한 학교 생활은 규칙을 지키는 안전한 생활에서 시작됩니다. 안전하게 생활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교통안전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등하굣길 확인하고 연습해 보기

- 등하굣길의 위험 지역을 미리 확인하고,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혼자 걷는 거리를 조금씩 넓혀가며 연습합니다.
- 연습할 때는 횡단보도를 몇 번 건너는지, 눈에 띄는 건물이나 상점은 어디있는지 길을 익히도록 부모님과 함께 걸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학교가 멀어 통학버스를 이용한다면, 승차장에서 올바르게 버스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방법을 꼭 배워야 합니다.

교통안전 1, 2, 3!

교통안전 1, 2, 3!



1. 멈춰요!

-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멈춰요.
- 갑자기 뛰어가지 말고, 먼저 멈추는 게 중요해요!



2. 살펴요!

- 왼쪽 → 오른쪽 → 다시 왼쪽을 천천히 살펴요.
- 자동차나 자전거가 오는지 꼭 확인해요.



3. 건너요!

- 신호등이 초록불이 되었을 때, 손을 들고 천천히 건너요.
- 뛰지 말고, 친구랑 장난치지 말고 조심히 걸어요.

Tip 하교 후 만날 장소 약속하기



• 약속한 장소에서 기다리기
  • 학교 앞에서 막연히 만나기로 하지 말고, 정문·후문 등 약속된 안전한 장소를 정해 자녀와 미리 가보는 것이 좋습니다.
  • 부모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기다리면 된다는 점을 알려 자녀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심시켜 주세요.

• 학원차나 통학차 이용 시 지켜야 할 약속
  • 학원차를 타는 경우에도 반드시 정해진 장소에서만 기다리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 차량을 기다릴 때는 주변을 돌아다니지 않고 약속된 장소에서 안전하게 대기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2) 안전을 지켜주는 교육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유괴·실종으로부터 우리 자녀를 지키기

-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록합니다.
- 외출을 할 때에는 반드시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가도록 합니다.
- 부모님의 허락 없이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 누군가 억지로 데리고 가려고 할 때는 “안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 자녀의 지문 등 사전정보를 경찰청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 안전드림 앱,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미리 등록합니다.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관심을 가지기

- 학교 활동을 마치면 곧장 집으로 가도록 약속합니다.
- 날이 흐리거나 저녁 시간 눈·비가 내릴 때는 밝은 색깔의 옷을 입습니다.
- 우산의 색깔을 밝고 투명하게 하여 앞이 잘 보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교통규칙과 질서를 지켜 등·하교하며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 너무 이르거나 늦은 등교보다는 많은 학생이 등교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등교합니다.
- 하교 후 만날 장소를 약속하거나 전화연락을 통해 위치를 확인합니다.

Tip

나침반 5분 안전교육자료

- 아래 홈페이지와 영상을 통해 나침반 5분 안전교육자료를 더 알아보세요.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홈페이지〉 똑똑! 안전을 배워요

https://www.goe.go.kr/child/na/ntt/selectNttList.do?mi=10916&bbsId=1938

〈안전교육 동영상 애니메이션 3편〉

감염병 예방편	성폭력 예방편	통학버스 안전편



3) 디지털 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없이 학교 생활하기





- 학교에는 컴퓨터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교내 무선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 학교에 준비된 디지털 기기로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디지털 기기 사용 규칙 알아보기

• 스마트폰 사용 규칙 정하기

- 가정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정해 함께 지켜야 합니다.
- 식탁·침실은 사용 금지 구역으로 하고, 악플을 달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 스마트폰 규칙은 자녀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지켜야 합니다.
- 학교에서는 규정에 맞게 수업 시간에는 휴대폰을 꺼두거나 가방에 보관하고, 하교 후에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 올바른 디지털 기기 사용법 가르치기



- 건강한 사용 습관에 대한 모범 보이기



- 사용 규칙을 미리 정해 두기



-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함께 모색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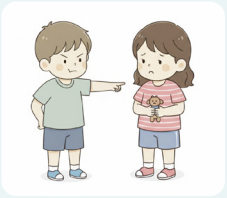
- 보상으로써 디지털 미디어 사용을 제공하지 않기

4) 학교폭력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 관련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기

• 친구와 놀다가 장난으로 때리거나 놀리는 말을 한 적 있나요? 그때 친구가 웃지 않고 슬퍼하거나 화난 얼굴을 했던 적도 있을 거에요. 그런 행동이 반복되면 자신도 모르게 친구를 아프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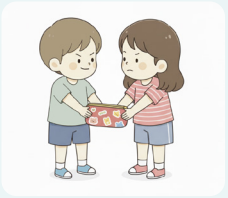
• 학교폭력 관련자가 될 수 있는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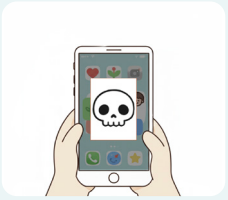
친구에게 나쁜 말을 하거나 놀리는 것



일부러 무리에서 친구를 따돌리는 것



친구 물건을 빼앗거나 말없이 빌리는 것



문자나 인터넷으로 나쁜 말을 전송하는 것

• 약속해요

1. 장난이라도 친구가 싫다고 하면 멈추기!
2. 친구를 놀리거나 웃음거리로 만들지 않기!
3. 모두가 함께 놀기!

• 도움 요청하기

• 담임선생님, 교내 위클래스(Wee class) 상담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 교육지원청에 있는 위(Wee) 센터로 연락하세요.
• 학교폭력신고센터 117, 학교폭력 신고 어플117CHAT 등을 활용하세요.
• 전담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전담경찰관은 학생, 학부모, 선생님 등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117신고센터나 SNS를 통해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을 접수 및 상담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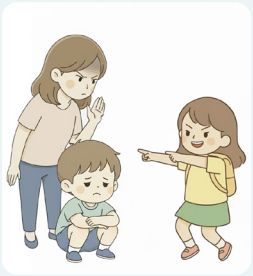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가정에서는 이렇게 지도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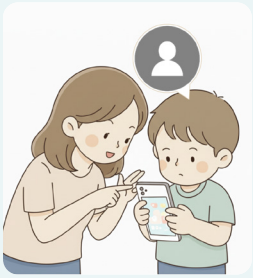
자녀가 깨끗이 씻고 단정하게 옷을 입도록 지도해 주세요!



컴퓨터·스마트폰 사용 시 친구를 비방하지 않도록 주의시켜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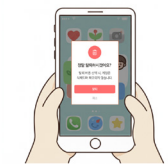
친구를 놀리거나 소외·괴롭히는 행동은 범죄임을 분명히 알려 주세요!



자녀의 사이버 프로필이나 메시지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대화를 나눠 주세요!

Tip 사이버폭력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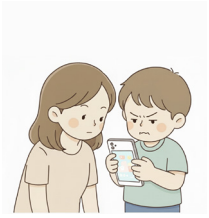
문제의 신호가 될 수 있어요



SNS 계정을 탈퇴 하거나 아이디가 없어요



용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사용요금이 많이 나와요



스마트폰을 보거나 만지는 것을 매우 싫어해요



사용 시간이 지나치게 많고 자주 확인해요

- 자녀가 SNS 계정을 탈퇴하거나 아이디를 갑자기 삭제한다.
- 용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온라인 기기의 사용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
- 부모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거나 만지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고 불안한 기색으로 스마트폰을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PART

슬기로운 학부모생활

❶ (성찰) 학부모로서의 나! 새로운 시작 48
❷ (가정교육) 우리 아이! 학생답게 55
❸ (학교교육) 학교 이해! 진정한 학부모 67
❹ (학교협력) 소통과 동행! 교육공동체 90

2026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초등학교 안내서

II

부모, 학부모가 되다



01 (성찰) 학부모서로의 나! 새로운 시작

◆ 1. 부모 자존감 알아보기

부모의 자존감은 아이들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불안을 낮추고 어떻게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1) 부모 자존감이란?

부모 자존감은 부모로서의 자신을 긍정하고 사랑하는 감정입니다. 나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며 부모로서의 역할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존감은 단순한 자아 평가를 넘어서 자녀 양육에 있어 정서적 안정성과 양육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모 자존감이 낮을 경우 자녀의 행동에 과도할 만큼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자녀에게 인정받으려는 태도를 보일 수 있으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갈등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부모 자존감이 높은 경우 자녀의 감정을 수용하고 일관성 있는 태도로 지도할 수 있으며 자녀와의 관계에서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부모 자존감은 자녀가 자기를 긍정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데에 있어 중요한 모델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스스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돌보며 자신을 사랑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자녀 양육의 첫걸음이 됩니다.



2) 부모 자존감을 확인해볼까요?

순	문항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1	나는 부모로서 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			
2	나는 나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모르겠다.			
3	자녀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상처를 받는다.			
4	다른 부모들과 나를 자주 비교한다.			
5	자녀와의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쉽게 조절하지 못한다.			
6	자녀를 과도하게 통제하거나 훈육한 후 죄책감을 느낀다.			
7	부모 역할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자주 든다.			
8	내 감정을 돌보는 것이 자녀 양육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자주 그렇다'가 5개 이상인 경우
  부모로서의 자기 인식이 위축되어 있거나 정서 조절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 표현 훈련, 자기 돌봄 실천, 전문가 상담 등을 고려해보세요.
- '가끔 그렇다'가 5개 이상인 경우
  현재 부담감이나 피로가 누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격려하고 감정을 인식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이 표는 자가진단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정식 진단도구는 아닙니다. 따라서 '가끔 그렇다'와 '자주 그렇다'가 많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 tip을 참고하여 부모의 자존감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Tip 영상으로 부모의 자존감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ebs재미있는상식, 자존감 있는 부모가 자존감 있는 아이를 만든다!〉
https://youtu.be/JFlCgVmuvjE?si=YOEKoQkcg8EX9iTF

〈EBSCulture, 부모특강-0.1%의 비밀-아이에게 대물림되는 부모의 자존감〉
https://youtu.be/sb5WCvYAQWI?si=endnR1_c4Gr3v79D

3) 불안을 낮추고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감정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기

- 부모가 느끼는 불안, 죄책감,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숨기기보다 **'지금 내가 힘들다고 느끼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감정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말이나 글로 표현합니다. 자녀에게도 **'엄마도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어'** 처럼 정직하게 감정을 나누는 대화가 도움이 됩니다.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충분히 좋은 부모'가 되기

-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 해내야 한다는 생각은 부담과 자책을 키우고 자존감을 깎습니다. 부모 자존감은 완벽함보다 일관성과 진심에서 자라납니다.
- **부모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는 자녀 앞에서 사과하고 회복하는 기회로 생각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자신이 잘한 점을 스스로 칭찬합니다.

자기 돌봄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기

- 부모의 감정이 안정되어야 자녀와의 관계도 안정됩니다. '나를 돌보는 시간'은 절대 사치가 아니라 자녀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 좋아하는 음악 듣기, 따뜻한 차 마시기, 산책 등 나만의 휴식 시간을 짧게라도 마련합니다. 배우자나 지인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대화 관계를 유지합니다.

관계 회복은 '존중'에서 시작하기

-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단방향 지도가 아니라 상호 존중 속에서 회복됩니다.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말의 의도와 감정, 표현 방식을 존중해 주는 태도로 신뢰를 쌓습니다.
- 규칙을 정할 때는 자녀와 함께 정하고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나만의 실천 방법을 계획해 보세요 >

2. 자녀 교육관 살펴보기

자녀 교육관이란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키우고자 하는지에 대한 내면의 기준과 신념을 말합니다. 부모의 말투, 태도, 기대, 양육 방식 등에서 자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으신가요?

자녀 교육관을 성찰하기 위해 다음 질문에 답해보세요.

나는 자녀를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가?
자녀가 실수했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있는가, 통제하려고 하는가?

1) 자녀 교육, 무엇을 우선해야 할까요?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한 많은 노력 중 무엇을 먼저 실천해야 할지 분명히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른 자녀 교육관을 정립하는 것은 이상적인 학부모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자녀의 심신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관계를 우선하기

학습이나 훈육보다 먼저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연결이 중요합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은 무엇보다 성장의 튼튼한 기반이 됩니다.

감정을 먼저 읽어주기

자녀의 행동을 바로잡기보다 감정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진짜 교육의 시작입니다.
'왜 그랬어?'보다 **'마음이 어땠어?'**라고 물어보는 태도가 자녀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기다려주는 부모가 되기

조급한 훈육보다 실수할 기회를 주고 회복을 도와주는 경험이 자녀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부모의 인내는 자녀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줍니다.



2) 바른 자녀 교육관을 갖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자녀 교육은 정보보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성장하길 바라는지가 곧 부모의 자녀 교육관이며, 이 관점은 자녀의 자존감과 관계 형성, 학습 태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바른 교육관을 형성하기 위해 부모가 실천할 수 있는 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기대보다 자녀의 감정에 먼저 귀 기울이기

자녀의 행동을 교정하려 하기보다 그 이면에 있는 감정과 욕구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대신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먼저 떠올려봅니다. 이는 자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자녀를 이끌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자라는 존재'로 바라보기

자녀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실수하며 배워가는 중입니다. 훈육보다는 신뢰, 통제보다는 기다림이 우선시될 때 자녀는 스스로의 방식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함께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 자신의 감정과 태도 점검하기

자녀를 존중하는 태도는 부모 스스로를 존중할 때 가능해집니다. 부모의 자존감은 자녀에게 그대로 반영되며 감정 조절과 양육 일관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나의 감정 상태와 반응 방식을 돌아보며 부모로서의 마음을 가다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경쟁이 아닌 성장을 바라보는 시선 갖기

비교와 성취 중심의 교육관은 자녀를 조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잘하는 자녀보다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하는 자녀'를 응원하는 태도가 건강한 교육관을 형성합니다.

Tip 영상으로 자녀 교육관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EBSi, 성공한 부모일수록 자녀의 미래를 제대로 내다보지 못할 수 있다.〉
https://youtu.be/zZIoMTQty_c?si=bt37U_lbs-7zWNwd

◆ 3. 공감적 의사소통 하기

자녀와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입니다. 공감적 의사소통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화 방식입니다. 공감적 의사소통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감적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다음 질문을 통해 성찰해 보세요.

나는 자녀의 감정에 먼저 공감해주고 있는가?
나는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가?
나는 자녀를 비난하거나 훈계하기보다 질문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가?

1) 공감적 의사소통은 무엇일까요?

자녀는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거나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아직 미숙합니다. 이때 부모가 감정을 읽고 이름을 붙여주면 자녀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받았다는 안정감을 느끼고 정서 조절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공감적 의사소통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상대의 감정과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교류하는 대화 방식입니다.

자기인식과 감정표현

공감적 의사소통의 출발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을 때 타인과의 건설적인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타인의 감정과 관점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

공감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에 마음을 기울여보는 행동입니다. 공감을 잘 할 수 있다면 타인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반응과 경청 기술

공감적 의사소통에서는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경청하며 판단이나 충고보다 감정을 수용하는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표정, 몸짓, 눈맞춤 등의 비언어적 신호를 읽고 반응하는 것도 의사소통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관계 속에서 조화롭게 표현하는 능력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도 함께 고려하는 배려가 담긴 표현을 습득하는 것이 공감적 의사소통의 최종 목표입니다.

2) 공감해 주는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감정코칭은 자녀의 감정을 인식하고 공감하며, 감정 표현과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부모의 대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자녀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감정코칭의 5단계

감정코칭은 미국 심리학자 존 가트맨의 연구에 기반을 두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감정을 인식한다.
자녀의 행동 이면에 숨어 있는 감정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표정이 울 것처럼 보이네. 속상한 일이 있었니?"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긴다.
감정을 잘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육의 순간입니다.
자녀가 울거나 떼를 쓸 때 혼내기보다는 감정의 원인을 이해하려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땠어? 엄마(아빠)가 듣고 싶어."

감정에 공감하고 경청한다.
판단 없이 자녀의 감정을 수용하고 함께 있어줍니다.
"그랬구나. 친구한테 그런 말 들으니까 속상했겠다."

감정에 이름을 붙여준다.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런 건 억울하다고 표현할 수 있거든. 지금 너도 그런 마음이 드니?"

적절한 한계를 제시하고 문제 해결을 돕는다.
감정은 수용하되, 행동은 지도합니다.
"화나는 건 이해하지만, 물건을 던지는 건 안 돼.
다음에는 어떻게 말로 표현하면 좋을까?"

공감적 소통은 자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자녀의 감정에 먼저 귀 기울이는 말 한마디를 건네 보세요.



공감이 부족해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왜 또 울어? 참아야지

그런 건 그만해, 그게 무슨 감정이야



공감이 잘 되고 있어요!

네가 그렇게 느꼈구나, 많이 놀랐겠다

지금 울 만큼 속상한 거구나, 엄마(아빠) 여기 있어

그럴 수도 있지, 슬플 땐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

Tip 영상으로 공감적 의사소통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학부모 on누리 – 〈아이의 마음을 읽는 법〉 5차시 강의〉
https://www.parents.go.kr/usr/wap/detail.do?app=10930&seq=7160078

02 (가정교육) 우리 아이! 학생답게

1. 아이 성향 및 기질 이해하기

학교에 간 우리 아이가 수업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아닐까, 너무 소극적이어서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 아이는 어떤 성향과 기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1) 1학년 학생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정서적 특성

- 1학년은 감정 표현이 솔직하고 직접적입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기뻐하거나 속상해하며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아직 미숙합니다.
- 부모나 교사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서적 안정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지적 특성

- 1학년은 구체적인 사물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고하는 '구체적 조작기'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개념보다 경험 중심, 놀이 중심의 학습에 더 잘 반응합니다.
- 스스로 계획하거나 시간 감각을 조절하는 능력은 낮아 학습 습관 형성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특성

- 또래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해지기 시작하며 협동·양보·질서 같은 사회적 규범을 배워 가는 시기입니다. 친구의 반응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 갈등 상황에서 감정보다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어 공감적 중재가 필요합니다.

신체적 특성

- 대근육은 비교적 발달되어 활발하게 움직이는 활동을 선호하지만 소근육 조절은 아직 미숙한 경우가 많아 글쓰기, 자르기, 붙이기 등 반복적 연습이 필요합니다.
- 충분한 휴식과 리듬 있는 일상이 정서적 안정감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1학년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특성들이 있지만 자녀마다 성향과 기질이 달라 같은 양육 방식이 모두에게 효과적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성향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양육 방식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 특성에 맞는 양육법에 대해 살펴볼까요?

2) 우리 아이는 어떤 기질 및 성향을 가졌을까요?

순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불안하거나 긴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2	감정이 얼굴에 잘 드러나고 기분 변화가 자주 있다.					
3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 스스로 진정하려는 노력을 한다.					
4	놀이 중이나 활동 중 갑작스러운 중단에도 잘 적응하는 편이다.					
5	집중해야 할 상황(예: 과제, 이야기 듣기)에서 오래 집중할 수 있다.					
6	한 가지 활동에 오랫동안 몰입하여 완성하려는 경향이 있다.					
7	낯선 친구나 어른과도 금세 친해지려 하며 말을 잘 건다.					
8	또래와 함께 놀고 협력하는 활동을 즐긴다.					
9	앉아서 하는 활동보다 움직이는 활동을 더 좋아한다.					
10	집 안에서도 계속 돌아다니거나 무언가를 하며 에너지를 발산한다.					
11	즐겁거나 기쁜 일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크게 표현하는 편이다.					
12	감정이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목소리나 표정이 확연히 달라진다.					

• 전혀 아니다(1점) 아니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

① 12번 문항까지의 응답을 점수로 환산합니다.

② 1번부터 차례대로 두 개씩 합산합니다.

문항	1~2번	3~4번	5~6번	7~8번	9~10번	11~12번
합계	점	점	점	점	점	점

• 자녀의 기질과 성향을 해석해 볼까요?

각 항목의 점수를 더한 뒤, 아래의 기질 요인별 해석표를 참고하여 자녀가 어떤 기질과 성향을 지녔는지 살펴보세요.
높은 점수를 받은 영역은 자녀의 뚜렷한 기질 특성을 나타내며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양육이 가능합니다.

문항	기질 요인	높은 점수(8~10점)	낮은 점수(2~4점)
1~2	정서성	감정 표현이 풍부하고 예민함. 불안감, 긴장, 감정 기복이 두드러짐.	정서 표현이 억제되거나 둔감할 수 있음. 감정을 숨기거나 잘 드러내지 않음.
3~4	정서조절성	감정을 조절하고 적응력이 뛰어남. 자기통제력이 발달함.	쉽게 흥분하거나 충동적일 수 있음. 전환 상황에 어려움 있음.
5~6	주의집중력	몰입 능력이 뛰어나고 활동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경향 있음.	산만하고 쉽게 집중을 잃음. 지속적 활동이 어려움.
7~8	사회성	대인관계가 활발하며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즐김.	낯가림이 심하거나 친구 관계에서 소극적일 수 있음.
9~10	활동성	에너지가 풍부하고 움직임이 많음. 신체활동 선호.	조용하고 정적인 활동을 선호함. 피로를 잘 느낌.
11~12	반응성	자극에 민감하고 감정 표현이 즉각적임. 표현이 강렬함.	자극에 덜 민감하거나 반응이 늦거나 약함. 표현이 적을 수 있음.



3) 우리 아이 기질에 따른 맞춤형 양육 전략을 알아볼까요?

자녀의 기질은 타고난 특성이며, 좋고 나쁨이 아닌 '다름'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의 성향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방식으로 반응하고 지도하는 것입니다.

정서성과 반응성이 높은 민감한 자녀를 위한 양육법

민감한 자녀는 정서성과 반응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감정에 민감하고 자극에 즉각 반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불안해하거나 쉽게 속상해하며 감정을 크게 표현합니다. 예민한 기질이지만 감정이 풍부하고 공감능력도 뛰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녀에게는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기보다 감정을 인정하고 안정감을 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 **"그렇게 속상했구나. 엄마도 그런 일이 있었을 땐 마음이 복잡했어.**
> **괜찮아, 함께 해결해보자."**

정서조절성과 주의집중력이 높은 적응형 자녀를 위한 양육법

적응형 자녀는 정서조절성과 주의집중력이 높습니다. 따라서 감정을 조절하고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는 힘이 강합니다. 낯선 환경에도 잘 적응하고 집중력 있게 과제를 수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녀는 부모의 지지를 받으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강화됩니다.
이때는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노력 과정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대화가 효과적입니다.

> **"혼자서 그렇게 집중해서 끝내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 **아빠는 네가 스스로 해낸 게 정말 자랑스러워."**

활동성과 반응성이 높은 에너지형 자녀를 위한 양육법

에너지형 자녀는 활동성과 반응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움직임이 많고 에너지가 넘치며 감정 반응도 강한 편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활동보다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좋아하고 즉각적으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이런 자녀에게는 규칙과 예측 가능한 일과를 만들어 주고 활동 후에는 스스로 감정을 돌아보게 하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 **"오늘 많이 뛰어서 신났구나!**
> **그런데 우리가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조금씩 정리해보자."**

사회성이 낮고 정서성이 높은 조심형 자녀를 위한 양육법

조심형 자녀는 사회성이 낮고 정서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낯선 상황에서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입니다. 새로운 친구나 환경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필요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긴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녀에게는 시간을 주고 지켜봐 주는 자세가 중요하며 서두르지 않고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엔 누구나 조금 떨릴 수 있어. 오늘은 그냥 옆에서 지켜만 봐도 괜찮아.
네가 준비되면 말해줘."**

주의집중성과 정서조절성이 낮은 산만한 자녀를 위한 양육법

산만한 자녀는 주의집중성과 정서조절성이 모두 낮습니다. 자극에 쉽게 주의를 빼앗기며 감정이 격해질 때 조절이 어려워 산만하거나 통제가 안 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녀에게는 간결하고 반복적인 규칙 안내, 짧은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활동, 즉각적인 피드백이 도움이 됩니다.
감정이 격해질 경우 무작정 제지하기보다는 먼저 진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뒤 다시 과제에 집중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지금 마음이 좀 복잡한 것 같구나. 잠깐 숨 고르고 다시 시작해 볼까?
아빠가 기다려줄게."**

활동성과 사회성이 모두 낮은 내성적인 자녀를 위한 양육법

내성적인 자녀는 활동성과 사회성이 모두 낮습니다. 새로운 상황이나 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낮고 또래와 어울리기보다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단체 활동이나 새로운 친구와의 만남에 대한 불편함을 자주 표현하며 적응하는 시간과 반복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녀에게는 서두르지 않고 작은 활동부터 시작하도록 격려하고, 성공 경험을 통해 사회적 자신감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참여를 강요하기보다는 자녀의 속도에 맞춘 접근이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낯설 수 있어.
혼자서 해도 괜찮고, 원하면 엄마랑 같이 해볼 수도 있어."**

2. 학교생활 기초 다지기

초등학교 시기는 생활 습관과 기초 학습, 사회성 등 전반적인 발달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입니다. 학교생활에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기초 학습 능력'을 강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올바른 생활 습관을 잘 형성하기 위해 다음 질문을 통해 성찰해 보세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드나요?
학교에 지각하지 않고 준비물을 스스로 챙기나요?
식사 후나 놀이 후 물건을 제자리에 정리하나요?
약속한 규칙을 지키려고 하나요?

올바른 생활 습관 만들기

- **생활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주기**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잠드는 생활을 통해 자녀의 생체리듬이 안정됩니다. 규칙적인 수면, 식사, 휴식 시간은 자녀의 정서 안정과 집중력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하도록 하기**

  가방 싸기, 교과서 정리, 준비물 챙기기 등을 자녀가 혼자 해볼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해본 경험이 자율성과 책임감을 길러줍니다.

- **부모가 좋은 모델이 되어주기**

  부모의 행동은 자녀의 거울이 됩니다. 부모가 정리 정돈, 시간 약속, 말과 행동의 일관성을 보일 때 자녀는 자연스럽게 이를 따라하게 됩니다.

- **구체적인 칭찬과 피드백으로 습관을 강화하기**

  '잘했어'보다는 **'스스로 일찍 일어나려고 했구나.', '준비물을 직접 챙긴 게 참 대단해.'**처럼 구체적인 언어로 피드백 해야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에 대해 칭찬합니다.

바른 언어습관 기르기

- **공감 표현과 존중 언어를 함께 사용하기**

  자녀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해주는 언어는 소통의 첫걸음이 됩니다. 자녀의 말을 중단시키거나 평가하기보다 듣고 반응하는 방식의 언어 사용이 중요합니다.

• **바른 말 사용에 대한 구체적 피드백 주기**

자녀의 표현 중 긍정적 언어나 배려 있는 말을 포착해 구체적으로 칭찬하면 해당 언어 사용이 강화됩니다. 단순히 '착하네.'보다는 **'부드럽게 말하려고 한 게 훌륭해.'**처럼 말의 방식에 대해 피드백 합니다.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기

• **학습환경 정돈하기**

장난감, TV, 소음 등을 멀리한 정돈된 공간은 자녀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 **일정한 학습 루틴 함께 만들기**

정해진 시간에 학습을 시작하고 마치는 습관은 자기주도성을 기르는 기초입니다. '학교 다녀와서 간식 먹고 10분 쉬고 20분 책 읽기'와 같이 규칙적인 생활 속에 학습 시간이 자연스럽게 포함되도록 유도합니다.

• **스스로 계획하고 점검할 기회 주기**

자녀 스스로 오늘 할 일을 정하고 다 했는지 확인해보는 경험은 주도성을 키워줍니다. 처음엔 간단한 2~3가지 목표부터 시작하고 부모는 격려와 피드백을 통해 도와줍니다. 과정에서 실수나 실패가 있더라도 배움의 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바른 독서습관 기르기

• **하루 10~20분, 정해진 시간에 함께 책 읽는 습관 만들기**

규칙적인 독서 시간은 독서가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도록 도와줍니다. 부모님도 TV나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녀와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녀의 흥미와 수준에 맞는 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자녀에게 적절한 책을 고를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줍니다. 너무 어렵거나 지루한 책은 독서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주제와 글밥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책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감정과 생각 표현을 이끌어내기**

책을 함께 읽은 후 등장인물의 감정을 묻고 공감해보는 대화를 나누어봅니다. 이를 통해 책 읽기는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감정 이해와 의사소통의 도구가 됩니다. 그림 그리기, 말로 줄거리 다시 말하기, 인형극 만들기 등 자녀가 읽은 책의 내용을 놀이로 확장하면 독서에 대한 즐거움과 몰입이 커집니다. 책 속 경험을 자신의 삶과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회성 기르기

•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기

감정에 이름 붙이기와 감정코칭을 통해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사회성의 기초를 다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화났구나. 왜 그렇게 느꼈는지 말해줄래?'**와 같은 공감 중심 대화를 합니다.

• 역할 놀이와 상황극을 통해 친구 입장을 상상하게 하기

친구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역할 바꾸기 놀이 등을 통해 자녀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 집에서부터 협동 경험하기

가정에서 함께 식사 준비, 놀이 계획 세우기, 청소 등의 역할 분담을 통해 '기다리기, 양보하기, 함께 하기'의 감각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학교에서의 사회성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문제행동에 대처하기

• 행동보다 감정에 먼저 주목하기

자녀의 문제행동은 감정표현의 한 방식입니다. 먼저 감정에 공감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래?'**와 같은 질문으로 자녀가 스스로 이야기할 기회를 줍니다.

• 문제행동에 일관되게 대응하기

문제행동에 대해 순간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부모가 미리 정한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대응해야 합니다. **'약속한 시간이 지났으니 지금은 그만해야 해'**와 같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말합니다.

• 대신할 수 있는 바람직한 행동을 알려주기

하지 말라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무엇을 하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문제행동을 줄이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기보다 도와줘라고 말해볼까?'**처럼 대신 할 수 있는 행동을 말해줍니다.

• 문제행동을 기회로 삼아 자녀와의 신뢰 쌓기

문제행동은 훈육의 기회이자 관계 회복의 기회입니다. 문제 상황 이후 **'엄마(아빠)는 네가 이런 일이 있어도 다시 잘할 거라 믿어'**와 같은 말로 신뢰를 표현해 줍니다.



디지털 시민성 기르기

-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기기를 사용하도록 습관 만들기**

  기기는 반드시 부모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사용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자유롭게 노출되는 환경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로 규칙을 세워주는 것이 리터러시 교육의 시작입니다. 하루 30분 이내, 식사 중이나 잠자리에서 사용 금지 등 구체적인 규칙을 만들어줍니다.

- **디지털 기기의 목적과 사용 이유를 설명하며 사용하기**

  기기의 사용 목적을 먼저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단순한 놀이도구가 아닌 목적이 있는 도구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정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함께 판단해보는 연습하기**

  정답을 주기보다 **'이건 진짜일까?', '어떤 광고일까?'** 등의 질문을 던지며 자녀가 판단력을 스스로 키우도록 유도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서는 질문 중심의 대화가 효과적입니다.

Tip 디지털 시민성이란?

유네스코(2017)에서는 디지털 시민성을 21세기 디지털 환경에서 어린이가 탐색하고 참여하며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기초적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기 시작하는 시기로 바른 습관과 판단 기준을 형성하기 위한 기초 교육이 중요합니다.



3. 건강한 가족문화 만들기

가족 구성원 모두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 건강한 가족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가진 강점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며, 공동의 꿈과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문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건강한 가족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음 질문을 통해 성찰해 보세요.

우리 가족은 서로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나요?
가족 구성원이 함께 정한 생활 규칙이나 약속을 모두가 이해하고 지키고 있나요?
가족 내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을 존중하며 평화롭게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1) 자녀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자녀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권리를 가지며 부모는 양육과 보호의 책임을 지는 동시에 자녀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존중은 자녀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의 권리 또한 존중할 수 있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자녀의 말에 끝까지 귀 기울이며 진지하게 반응하기

자녀의 이야기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넘기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네가 그렇게 느꼈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와 같이 반응합니다.

감정 표현과 의견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기

자녀도 자기 감정을 말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자녀의 말을 바로 판단하거나 훈계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겠다.'**고 반응하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선택의 기회를 자주 제공하여 자기결정권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아침에 입을 옷, 읽을 책, 놀이 순서 등을 자녀가 선택해보는 기회를 주는 것이 권리 존중의 시작이자 주도성의 기초입니다.

자녀의 비밀이나 실수를 타인에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기

자녀에게도 프라이버시와 실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의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 침묵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자녀와의 약속을 어기거나 타인에게 민감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2) 밥상머리 대화란 무엇일까요?

밥상머리 대화는 가족이 함께 식사하며 자연스럽게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이자 정서적 소통의 장입니다. 단순한 식사 시간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가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고 감정과 생각을 나누며 관계의 신뢰를 쌓는 시간입니다.

- 부모의 말보다 '함께 듣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 '공감과 칭찬', '감정 나누기'가 정서안정의 기반이 됩니다.
- 식탁은 가정 내 민주적인 소통 훈련의 장이 됩니다.
- 작은 관심이 자녀의 자존감을 키웁니다.

Tip 밥상머리 대화를 위해 질문을 활용해 보세요

아래와 같은 질문은 긍정 경험을 되돌아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존감을 키우는 데 중요한 대화가 됩니다. 지금, 식탁 위에서 시작해 보세요!

- 오늘 가장 기분 좋았던 일은 뭐였어?
- 오늘 학교에서 새로운 걸 배운 게 있었니?
- 친구랑 재미있게 놀았던 이야기를 들려줄래?
- 오늘은 누구에게 고마운 일이 있었니?
- 하루 중 가장 힘들었던 일은 뭐였어?
- 요즘 네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나 게임은 뭐야?
- 오늘 네가 스스로 잘했다고 느낀 건 뭐야?



3) 건강한 가족문화를 위한 규칙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가족은 자녀가 처음으로 소속감을 경험하고 관계를 배우는 가장 작은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가족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족 규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정하고 실천하는 약속이어야 합니다.

가족회의 순서

우리 가족이 지키고 싶은 규칙을 떠올려보세요.

▼

우리 가족 규칙과 정한 이유를 보기 좋게 정리해요.

▼

규칙을 정한 뒤 가족 모두가 이름을 쓰고 서약해요.

▼

규칙을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에 붙여두고 매주 한 번씩 가족회의에서 점검해요.

가족 규칙을 만들어 볼까요?

(예시) 박스에 하나씩 체크하면서 가족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 서로 말할 때는 눈을 보고, 끼어들지 않아요.
☐ 화가 나면 차분한 말로 감정을 표현해요.
☐ 하루에 한 번씩 서로 칭찬하고 고마운 말을 해요.
☐ 식사 시간에는 TV나 휴대폰 없이 이야기만 해요.
☐ 다툴 일이 생기면 가족회의로 함께 해결해요.
☐ 자기 물건은 스스로 정리하고 제자리에 두어요.
☐ 잠자기 전 오늘 하루 어땠는지 이야기 나눠요.

〈 우리 가족의 규칙을 써 보세요. 〉

03 (학교교육) 학교 이해! 진정한 학부모

1. 1학년 교육과정 이해하기

1학년 교육과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아이들이 어떤 배움의 출발점에 서 있는지를 바라보고 그 여정을 어떻게 이끌어 줄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1학년 교육과정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1학년 자녀의 생활을 준비해 볼까요?

1)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알아볼까요?

초등학교 교육목표

초등학교 교육은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1학년에서의 변화

- 한글 학습 강화를 위해 국어 시간을 34시간 확대했습니다.
- '안전한 생활'은 교과와 연계하여 학습하고, '즐거운 생활'에서는 놀이와 신체 활동 기회를 늘렸습니다.
- 진로연계교육을 도입해 학생들의 학습과 초등학교 적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1학년 교육과정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초등학교 1학년의 교육과정은 국어, 수학, 통합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으로 운영됩니다.

국어	3월부터 한글 문해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입학 초기에는 말하기·듣기를 중심으로 공부하며, 놀이, 만들기 등 조작활동을 활용합니다.
수학	수학에서는 숫자와 수학 개념에 익숙해지도록 다양한 기초 내용(50까지 숫자 세기, 간단한 덧셈과 뺄셈, 길이와 무게 비교 등)을 배웁니다.
통합 교과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을 주제에 따라 통합하여 가르칩니다. 1학기에는 '학교', '사람들', '우리나라', '탐험'과 관련된 내용을 배우고, 2학기에는 '하루', '약속', '상상', '이야기'와 관련된 내용을 배웁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은 국어, 수학 등의 교과 외에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활동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학식, 방학식 같은 행사, 인성교육, 안전교육, 계기교육(현충일, 광복절 등), 독서·디지털 교육, 예체능 활동, 진로 탐색 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1학년 교과서

1학년 교과서는 국어, 수학, 통합교과(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읽기·쓰기·셈하기·표현하기 등 기본 역량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돕습니다.

교과서	1학기	2학기
국어		
	국어 1-1 가, 나, 국어활동 1-1	국어 1-2 가, 나, 국어활동 1-2
	자음과 모음을 합쳐 글자를 만들기, 받침 있는 글자와 다양한 낱말을 읽기, 인사말과 문장을 또박또박 읽고 알맞은 낱말을 찾아 쓰는 활동을 합니다.	낱말과 문장을 또박또박 읽고 쓰기. 기분과 생각을 표현하기, 그림일기와 글쓰기를 통해 감동과 느낌을 나누는 활동을 합니다.
수학		
	수학 1-1, 수학익힘 1-1	수학 1-2, 수학익힘 1-2
	9까지의 수를 익히고 여러 가지 모양을 알아보기, 한자리 수 덧셈과 뺄셈 하기, 길이, 무게, 넓이 등 비교하기, 50까지의 수를 알아보는 활동을 합니다.	100가지 수 익히기, 세 수의 덧셈과 뺄셈, 두 자리 수의 덧셈과 뺄셈, 모양과 시각, 규칙 찾기 활동을 합니다.
통합 교과		
	학교 1-1, 우리나라 1-1, 사람들 1-1, 탐험 1-1	하루 1-2, 약속 1-2, 상상 1-2, 이야기 1-2
	학교와 우리나라, 사람들, 주변 세상을 탐구하며 놀이와 체험을 통해 배우고, 함께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활동을 합니다.	하루, 지구와 공동체, 아동을 위한 약속, 상상 세계, 이야기 만들기와 관련하여 탐구하고, 놀이 활동을 하며, 일상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실천하는 활동을 합니다.

Tip 교과서를 잃어버렸을 때는 이렇게 해요!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에 배정된 수량만큼 교과서가 보급되기 때문에, 분실 시 추가로 지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과서를 잃어버렸을 경우, 보호자께서 직접 개별 구매하셔야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는 모두 '국정교과서'이며, 교과서를 출판한 출판사 홈페이지나 온라인 서점 등을 통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3) 진로연계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자녀가 처음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이 시기,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첫걸음으로 '진로연계교육'을 합니다. 진로연계교육은 학생이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기 전에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교과 학습의 흐름을 이해하며 진로에 대한 기초 인식을 갖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특히 초등 1학년에서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의 전환을 자연스럽게 이어주고 아이들이 학교를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으로 받아들이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 친구 사귀기, 학교 둘러보기, 선생님과의 관계 맺기 등 학교생활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진로 탐색 활동:** 다양한 직업을 그림책이나 동화, 놀이를 통해 만나보고 세상에는 많은 역할이 있음을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 **상급 학년 준비 활동:** 상급 학년의 교과별 학습 내용과 학습 방법 등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교과 학습 연계 활동:** 학생이 주도적으로 내용을 연결할 수 있도록 질문을 바탕으로 한 탐구 활동, 친구와 이야기 나누기, 모둠 협동 학습 등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Tip 아래 자료를 통해 진로연계교육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진로연계교육 설계를 위한 디딤돌 안내서 : 초등학교〉
https://www.krivet.re.kr/kor/sub.do?menuSn=12&pstNo=PB0000000476

4) 입학초기 적응활동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

초등학교 1학년은 아이들이 유치원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들어서는 시기입니다. 1학년 입학 초기에는 낯선 환경과 사람에 대한 불안, 규칙적인 생활과 시간표 적응의 어려움, 미숙한 자기표현, 또래 관계의 긴장 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학교는 아이들이 학교를 즐겁고 안전한 곳으로 느끼며 학교 생활의 기본을 익히고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적응활동을 운영합니다.
주로 3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합니다.

영역	예시 활동
학교 이해	교실, 급식실, 화장실 등 학교 둘러보기
관계 형성	친구 이름 알아가기, 협동 게임, 칭찬 릴레이
학습 준비	책상 정리, 수업 시간 태도 익히기
한글 해득	말놀이, 받아쓰기 기초, 읽는 재미 느끼기
생활 습관	교실 규칙 익히기, 알림장 쓰기, 줄 서기

5) 한글책임교육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2학년 국어 시간이 확대되고, 입학 초기부터 한글 교육을 집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어 수업시간 확대

국어 수업 시간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교육시간에서 34시간이 추가되어 모든 학생이 1~2학년 시기에 한글을 제대로 익힐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합니다.

• 한글 문해 교육 집중 실시

3월부터 한글 문해 교육을 집중 실시합니다. 입학 초기 적응과 함께 한글 학습을 단계적으로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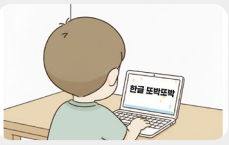
- 예시: 국어 34시간(한글 해득), 통합교과 48시간(학교 적응), 창의적 체험활동 34시간 (심리 정서·또래 관계 등)

• 학교에서의 한글 교육

- 입학 초에는 말하기와 듣기 중심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시작합니다.
- 자음과 모음의 소리, 글씨 쓰는 기본자세부터 차근차근 배우며 기초를 튼튼히 다집니다.
- 1학기에는 알림장 쓰기나 받아쓰기와 같은 쓰기 위주의 활동은 지양합니다.



교과서의 낱말 읽기로 한글을 익혔는지 확인해요. (8월말)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한글 또박또박」으로 읽기 수준을 파악하고, 맞춤 학습지를 출력해요.(8월말)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을 진행해요. (9~10월)



「한글 또박또박」으로 학생의 성취 정도를 확인하고, 성장 결과를 가정에 알려드려요. (10~11월)

Tip 영상을 통해 '한글또박또박'과 '찬찬한글' 활용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한글 또박또박' 프로그램(http://ihangeul.kr)을 통해 학생의 한글 익힘 수준을 진단하고, 결과를 가정에 안내합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 '찬찬한글',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자료 등을 활용해 학생 맞춤형 한글 학습을 진행합니다.

〈경기 교사온TV_초등〉
https://www.youtube.com/watch?v=Esjj62FLJnM

6) 기초소양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요즘 학교에서는 단순히 국어, 수학만 잘하는 것보다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기초소양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초소양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언어 소양

언어와 관련된 다양한 매체를 이해하고 생산·공유,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 구성원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능력

예: 글, 그림, 영상 같은 자료를 잘 읽고 이해하기, 내 생각을 말하거나 글로 써서 표현하기

수리 소양

수리적 정보와 표현 및 사고 방법을 이해, 해석, 사용하여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하는 능력

예: 표, 그래프, 숫자 같은 자료를 읽고 해석하기, 문제 상황에서 계산하고, 어떤 것이 더 나은지 생각하기

디지털 소양

디지털 세상에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이해, 평가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고 활용하는 능력

예: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고, 어떤 정보가 믿을 만한지 판단하기, 개인정보 존중하기

7) 난독증,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난독증의 의미

지능과 시력, 청력 등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문자를 읽고 철자를 구분하거나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에 장애가 있어 글을 원활하게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증상을 말합니다.

난독증의 원인과 증상

읽기 어려움, 즉 난독증은 신경학적 원인에 의한 학습 장애이며 지능이 높은 아동에게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난독증이 있는 아동은 단어 인지가 어려워 문자 해독에 어려움을 겪고 한글 배우기를 싫어하며 책 읽기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읽을 때는 이해력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 가정에서의 지원
  - 난독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며, 지속적인 읽기 교육도 필요합니다.
  - 자녀가 좋아하는 책을 자주 소리 내어 읽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 장점을 자주 칭찬해주고, 읽기와 쓰기 실수에 야단치거나 비난하지 않아야 합니다.
- 교육청에서의 지원
  -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난독증 학생을 선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Tip 난독증 좀 더 알아보기

〈난독증의 오해와 올바른 이해〉
https://www.youtube.com/watch?v=tA27PvRHMwM

〈난독증 지원센터〉
https://nandok.com/

◆ 2. 안전한 학습환경 만들기

자녀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학습환경을 위해서는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볼까요?

1) 학습권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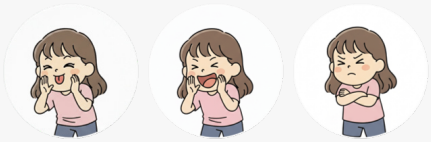
학습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 학습을 통해 성장·발달해 나갈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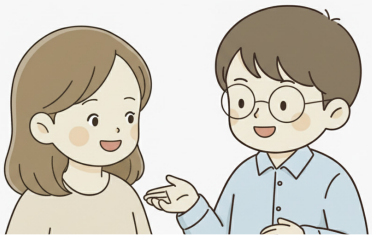


이런 상황이 학습권 침해!

- 수업 중 친구가 계속 장난칠 때
- 친구들이 소리 질러 수업 내용을 못 들을 때
- 지속적으로 무시당할 때



자녀의 학습권, 이렇게 지켜주세요!



아이의 하루를 관심 있게 들어주기
문제가 있다면 담임 선생님과 소통하기

Tip 자녀의 학습권 지키기

- 자녀의 하루를 관심 있게 들어주세요.
- 문제가 있다면 담임 선생님과 소통하세요.
- 학교 규칙과 수업 질서를 지지하는 표현을 해주세요.

2) 특수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특수교육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학생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입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은 초등학교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특수학교 등에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화교육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이 되면 학생의 장애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개별화된 교육을 실시합니다. 성공적인 개별화교육을 위해 개별화교육지원팀이 구성되고 학생의 수준에 맞춘 개별화교육계획(IEP) 작성, 통합교육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눕니다.



아이가 학습 및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보입니다.
특수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선정·배치합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되면 또래들에게 놀림을 받을까 걱정이 되는데 괜찮을까요?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되는 것은 낙인이 아니라 자녀가 필요한 지원을 적절하게 받을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되어 특수교육과 같은 학생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 중재가 이른 시기에 제공될수록 교육적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녀의 발달과 학습 및 사회 정서적인 측면의 성장을 위해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경우 진단·평가를 의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일반적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되면 학생의 특성에 맞춘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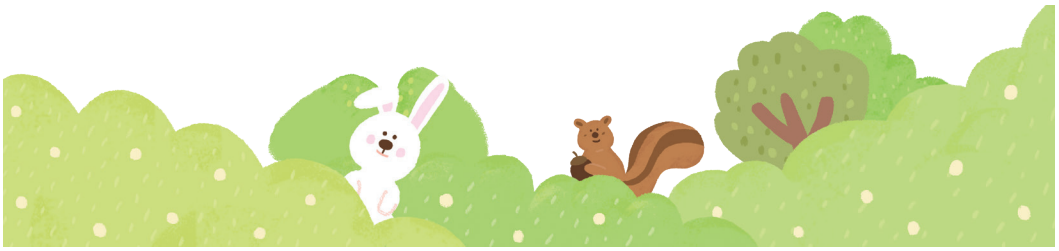
교육과정 지원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 배치될 경우 일반학급 대비 훨씬 적은 학생 수 비율에서 특수교육 전문가인 특수교사에게 교육과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 및 방과후학교 지원	아래 지원 중 하나를 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 치료지원 • 꿈이든카드 및 교내방과후 지원(1인당 월 15만원 이내) • 특수교육 종일반
원거리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와 통학 편의 제공을 위해 통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1인당 50,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지원인력 지원	특수교육지도사, 장애학생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등 특수교육 지원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순회교육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된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합니다.
보조공학기기 및 교재교구 지원	장애 특성에 맞는 보조공학기기 및 교재교구를 대여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 및 독립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합니다.

※ 지원 신청 시기 및 세부 내용 등은 소속 학교의 특수교육 담당 교사 또는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Tip 특수교육 관련 정보 제공

장애자녀 부모지원 종합시스템「온맘」

• 「온맘」은 장애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종합시스템으로,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nise.go.kr/onmam/



통합교육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소속된 일반학급을 통합학급이라고 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교육을 위해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특수학급이라고 합니다. 특수학급을 부르는 이름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예: 도움반, 사랑반, 학습지원실 등).

통합교육은 모든 학생이 함께 어울리며 사회성과 포용력을 키워주고 다양성과 공존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교육입니다.

• 특수교육대상학생 입장에서 통합교육의 장점

- **사회성 발달 및 적응력 강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또래와 함께 교류하면서 관계 맺는 법을 배웁니다.
- **다양한 역할 모델과의 상호작용:** 또래의 행동들을 관찰하면서 사회적으로 적절한 상호작용 행동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 **공평한 교육 기회:** 통합교육은 동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받는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 또래 학생 입장에서 통합교육의 장점

- **다양성 존중과 포용력 향상:**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 **문제 해결 능력 및 창의성 향상:**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학습하면서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해결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 **사회성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 여러 상황에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아이가 특수학급에 대해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자녀가 특수학급에 대해 질문한다면 특수학급의 역할을 중심으로 알려 줍니다.

- 장애로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
- 학교의 다양한 친구들이 모두 함께 모여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
- 슬프거나 화날 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어려운 친구가 자신의 마음을 가라 앉히는 공간

그리고 특수학급을 '특별반' '장애인반' 등으로 부르거나 설명하기보다 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의 정확한 반 이름과 함께 설명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수학급은 모든 학생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서로 다른 학생들이 어우러져 함께 지낼 수 있는 학교의 한 공간으로 설명하면 좋습니다.

3) 다문화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이는 단순히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데 목표를 둡니다.

다문화감수성 교육

다문화감수성이란 사람들이 서로 다른 문화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민감하게, 하지만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다문화감수성 교육은 이러한 역량을 성장시키기 위한 일련의 교육활동을 말합니다.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

- 다문화 주간 행사나 문화 체험 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직접 경험합니다.
- 이야기 나누기 시간이나 동화책 읽기 활동에서 다문화 관련 주제를 다룹니다.
- 친구들의 다른 배경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돕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은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을 위해 상호문화이해학교, 다문화 특별학급, 경기도형 다문화 예비학교, 다문화 국제혁신학교를 운영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Tip 다문화 교육지원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경기도다문화교육지원센터	다문화교육포털	다누리배움터(다누리)
https://more.goe.go.kr/da	https://www.edu4mc.or.kr	https://www.danurischool.kr



4)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요?

모든 학생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가꾸고, 미래 사회의 주인공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이러한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온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교육활동보호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교육활동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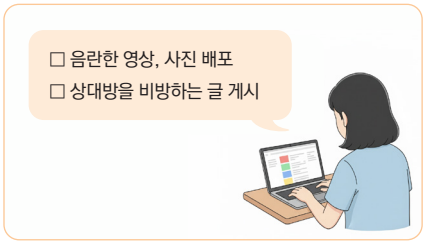
- 교원의 교육 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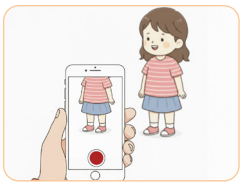
의도적인 수업방해 행위(신설)



불법정보 유통행위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



성폭력 범죄,
성희롱



교육활동 중인 선생님의
영상·사진·음성 무단 유포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부당한 간섭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교원의 지도에 불응하면 모두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가요?



모든 생활지도 불응을 교육활동 침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학생이 교원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교육과 지도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생활지도에 대한 단순 불응을 넘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며 교원의 개별적인 교육과 지도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므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한 학생생활지도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학교의 장,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그 밖에 분야에 대해 생활지도 할 수 있습니다.

조언	상담	주의
문제 인식 시, 언제든지 조언이나 권고 가능	상담예약 및 사전협의 상담거부 및 중단 가능	학교안전 및 질서유지 저해 우려시 주의

훈육	훈계	보상
지시, 제지 (물리적 제지 포함) 분리, 물품조사 및 분리보관	과제부여 (대안행동 제시, 성찰문, 훼손시설 원상복구)	칭찬, 상 등

문제행동에 대한 생활지도 절차

학생 문제행동 인식시

조언	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문제해결 지원
상담	해결방안 탐색 지원
주의	문제점 지적, 문제행동 소거를 위한 경고

문제행동 미인정·미개선시

훈육	지시, 제지, 물품 분리 보관 분리 → 필요시 보호자 인계 가정학습
훈계	문제행동시정 대안행동 제시, 성찰하는 글쓰기, 훼손된 시설에 대한 원상 복구

Tip 학부모를 위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자료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 유·초등학생 학부모편
https://www.youtube.com/watch?v=VysgbpglOKg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 학생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가 함께 교육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학생 행동을 공정하게 검토하고, 사안에 맞는 교육적 조치를 결정합니다. (특별교육, 봉사, 상담 등)
  - 학부모와 협력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자기반성과 회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학생생활규정 함께 알아보기**
  - 학생생활규정은 학교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칙과 예절을 규정한 문서입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교육활동, 생활지도, 안전, 자치활동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학교마다 학생생활규정이 있으며, 학교 홈페이지나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생생활규정 제정 및 개정 시에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칩니다.
- **학교문화 책임규약**
  - 학교 구성원(학교, 학부모/보호자, 교사)이 함께 학교폭력 및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내용을 이해하고 학교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을 확인하며 실천을 다짐하는 약속입니다.
  - 학교문화 책임규약은 학교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5) 학교폭력예방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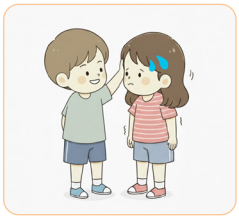
학교폭력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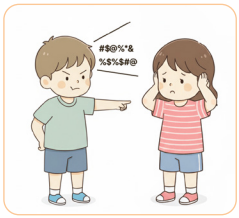
학교 안팎에서 학생이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예: 폭행, 협박, 따돌림, 강요, 사이버 괴롭힘, 성희롱 등

※ 법적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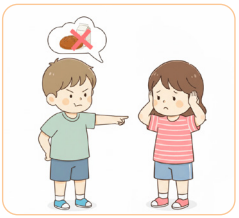
학교폭력의 유형


신체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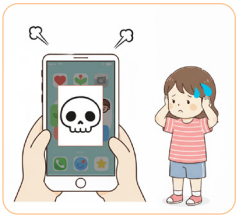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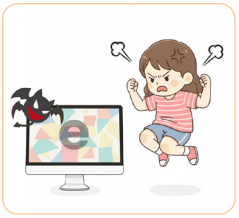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 **학교폭력 피해를 의심해 볼 수 있는 행동**
  - 자녀의 표정이 어둡고 학교에 가기 싫어해요.
  - 옷이나 준비물이 자주 망가져요.
  - 휴대폰을 숨기거나 SNS 계정을 갑자기 삭제해요.
  -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있으려 해요.
  - 절망감이나 복수심을 표현하는 낙서를 한 적이 있어요.

•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를 했다고 인지했을 경우**
  -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알았을 때, 모른 척하거나 감싸면 안 됩니다.
  -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자녀가 어떠한 폭력을 행사했는지 누구에게 왜 그랬는지의 상황과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담당교사와 상담합니다.
  - 가해 학생의 학부모는 자녀의 잘못과 부모의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 **학교폭력 발생 시 대처 방법**

① 자녀가 피해를 입었다면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세요.
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편하게 이야기해 줄래?'

② 학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학교 측에 문제를 알린 후, 자녀의 안전과 상황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세요.

③ 자녀가 받은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제공하세요. 학교나 교육청 위클래스 상담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④ 문제가 심각하다면, 가해 학생의 학부모와 대화할 수 있는 교육청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활용합니다.

Tip

교외 신고 방법과 지원 기관

(신고)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전화) 국번 없이 117, (문자) #0117, (방문) 직접 방문하여 신고·상담
안전Dream: https://www.safe182.go.kr
학교전담경찰관(SPO): 학교에서 안내받은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

(지원) 청소년전화1388, 청소년상담복지센터(CYS-Net), 청소년꿈키움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저학년의 경우, 어느 선까지 학교폭력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자녀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지 말고 담임선생님께 먼저 상담합니다. 전화하기에 앞서 부모가 개입해야 하는 상황인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동일 이름의 친구가 자주 언급되고 구체적인 상황들이 묘사될 때, 그리고 여러 명의 친구가 한꺼번에 괴롭히는 일들이 반복되면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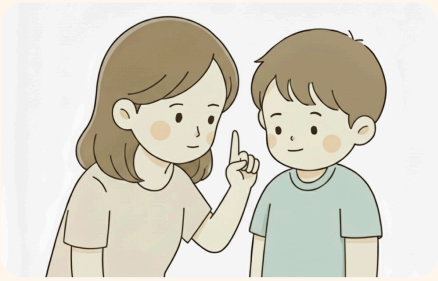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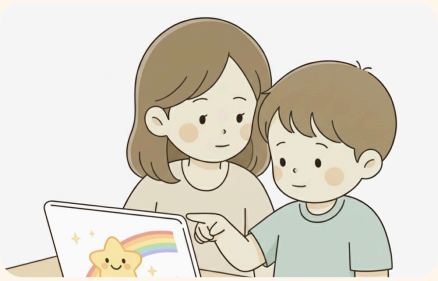
학교	→	학교폭력 제로센터 • 분석/조사관 배정 • 조사관 사안조사	→	학교	→	자체 해결 사안	→	학교 • 자체해결 통보 •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	학교 • 사후 조치 및 사후 지도
• 학교폭력 접수 및 초기 사실 확인 • 분리/긴급 조치(필요시)	→	학교 •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조사 •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면담	→	전담기구 심의	→	자체 해결 불가 사안	→	교육지원청 • 제로센터: 사례회의 개최, 심의위원회 개최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할 수 있음. 이때는 학교 자체해결)	→	학교 • 조치 이행 • 학생부 기재 •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6) 성폭력을 예방하려면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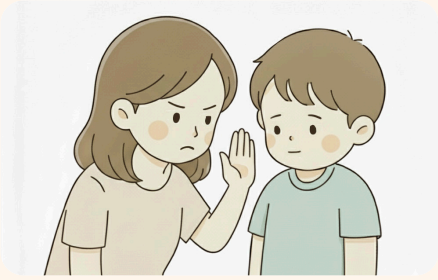
1학년 아이들은 발달 특성상 신체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이를 직접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다른 친구에게는 당황스럽거나 불쾌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꾸준한 대화와 지도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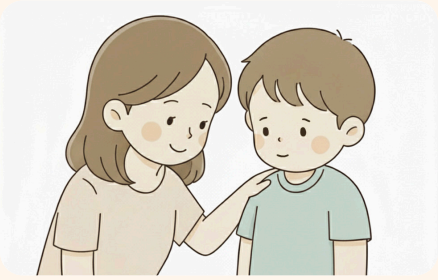
성적인 농담이나 장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상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신체나 성적인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리거나 공유하는 것은 범죄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친구가 성적인 행동을 요구하면 '안돼!'라고 분명하게 말하도록 가르쳐주기



상대방이 말없이 침묵한다고 해서 그것을 '좋다'는 뜻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알려주기

Tip 양성평등 교육자료, 성범죄 피해 신고 및 도움 받는 곳 알아봐요!

〈양성평등 교육자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https://www.kigepe.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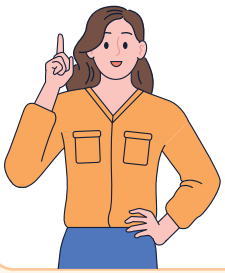
젠더온
https://genderon.kigepe.or.kr

〈성범죄 피해 신고 및 도움 받는 곳〉

성범죄 피해 신고하고 도움받는 곳: 신고 117, 학교폭력(성폭력) 상담: 담임, 보건, 상담 교사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1366
경찰지원센터 안전 Dream(https://www.safe182.go.kr)

7) 디지털 성범죄는 어떻게 예방하나요?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발생하는
성 인지 기반 폭력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

불법 촬영
누군가의 허락 없이
사진 또는 영상을 찍었어요

비동의 유포 및 재유포
동의 없이 사진 또는
영상을 SNS등에 올렸어요

유통 및 공유
친구들에게 불법 음란물
등을 공유했어요

유포 협박
사진, 영상들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했어요

사진 합성(딥페이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에 얼굴을 합성했어요

성적 괴롭힘
SNS 또는 메신저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일을 했어요

이런 것을 했다면, 나도 모르게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1.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사진/영상**을 찍지 않습니다.
2. 동의 없이 찍은 사진/영상을 **보거나 전달**하지 않습니다.
3. 다른 사람의 **성적 착취물**에 대해 안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4. 다른 사람의 사진/영상에 **성적 이미지를 합성**하지 않습니다.
5. 다른 사람의 사진/영상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가장 큰 범죄입니다.
촉법 소년이지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방관자가 아닌 방어자가 되어주세요!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디지털그루밍

"손 사진 보내줄래?"
작은 사진부터 시작하여 점점 다른 사진을 요구해요.
그루밍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기

"괜찮아? 도와줄 테니 만나자"
위로하는 척 하며 만나자고 하여 성적 관계를 유도해요.
개인정보 알려주지 않기

"네 사진 나에게 있는 거 알지?"
사진, 영상으로 협박하며 벗어나지 못하도록 해요.
혼자 해결하지 않고 주변 어른에게 도움 요청하기,
나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기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1. **증거 수집하기**
   메세지 캡쳐 또는 영상 촬영하기,
   관련 영상 삭제하지 않기
2. **적극적으로 신고하기**
   부모님 또는 선생님께 도움 요청하기
   나의 잘못이 아님을 알기
3. **기관에 도움 요청하기**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도움 받기

디지털 성폭력 신고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 817-7959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 735-8994

아이들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관심과 대화, 그리고 올바른 지도가
아이들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Tip

디지털 성범죄 예방 인식 개선 영상을 살펴보아요!

혹시 아이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계신가요?
https://www.youtube.com/watch?v=gGZgpeimWak&t=132s

8) 아동학대를 어떻게 예방하나요?

아동학대의 의미

아동학대는 보호자나 성인이 아이의 건강, 발달, 복지를 해치는 모든 행위입니다.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이나 아이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거나 버리는 행동도 모두 아동학대에 포함됩니다.

출처: 「아동복지법」 제3조

아동학대의 종류

- **신체학대**
  - 때리기, 밀기, 위협하기,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 입히기 등
- **정서학대**
  - 잠 안 재우기, 아이에게 폭력 강요, 비교·차별 등
- **성학대**
  - 아이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 신체 노출, 추행, 성매매 강요 등
- **방임/유기**
  - 밥을 안 주거나 병원에 안 데려가기, 학교에 보내지 않기 등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① 즉시 신고하세요(신고자는 법적으로 보호되며, 신고로 불이익을 받지 않음)

-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경찰), 112어플(아동 학대 정보 검색 및 신고까지 할 수 있는 모바일 앱) 또는 보건복지콜 센터 129로 바로 신고하기
- 신고할 때 필요한 정보: 아동과 학대 의심자 정보, 현재 아동의 상태(다친 곳, 응급조치 필요 여부 등), 함께 사는 다른 아동이 있는지 여부 등

② 위험한 상황이라면 아이가 안전할 수 있도록 가까운 어른이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③ 상황을 기록하세요. 아이의 상태, 말, 행동, 주변 정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억하거나 메모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9) 스마트폰을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할까요?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여러 위험

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기억력 문제
팝콘브레인/디지털치매
안구 문제
안구건조증/시력저하
손목 문제
손목터널증후군



청력 문제
소음성 난청
목·어깨 문제
거북목증후군
허리 문제
척추측만증

마음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증후군



"사용 후 기분, 감정이 좋지 않아요"
부정적 기분 / 감정 증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스마트폰 대화가 편해요"
디지털 격리증후군



"스마트폰 때문에 자꾸 싸워요"
일상생활 장애 / 가족 친구간 갈등



안전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초등학생
10명 중 8명(79%)
보행 중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

초등학생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시 사고 발생 비율
35.9%

스마트폰 하면서 횡단보도 건널시 사고 발생률
54.1%

스마트폰 과의존 유아동 관련 척도(만 9세 이하)

- 유아동(만3세~9세)은 학부모(관찰자)가 진단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일반 사용자, 잠재적 위험사용자, 고위험 사용자로 나뉘게 됩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1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부모의 지도에 불응한다.				
2	정해진 이용 시간에 맞추어 스마트폰 이용을 마무리하지 못한다.				
3	이용 중인 스마트폰을 빼앗아야만 그만둔다.				
4	항상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고 싶어한다.				
5	다른 어떤 것보다 스마트폰을 갖고 노는 것을 좋아한다.				
6	하루에도 수시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려 한다.				
7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아이와 자주 싸운다.				
8	스마트폰을 하느라 다른 놀이나 학습에 지장이 있다.				
9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시력이나 자세가 안 좋아진다.				

일반 사용자군(9점~23점)	스마트폰을 적절히 이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24점~27점)	과의존의 위험을 알고 계획적으로 조절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고위험 사용자군(28점~36점)	스마트폰 과의존 성향이 매우 높으므로 전문적인 지원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의 경우 대처 방법

① 사용 시간과 장소 정하기
② 가족과 함께하는 활동(산책, 운동, 보드게임 등) 늘리기
③ 긍정적인 대안 제시하기
④ 스마트폰 사용을 함께 관리하기
⑤ 부모가 모범 보이기
⑥ 전문기관 도움 요청하기

- 전문 기관 상담 요청 : 스마트쉼센터(☎1599-0075), 청소년 전화(1388)

10) 안전한 학교 생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학교에서는 교육부의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 중심의 교육 활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신변안전,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이렇게 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생들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받게 됩니다.

Tip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교육 자료

학교안전지원시스템	행정안전부 안전한 TV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
https://www.schoolsafe24.or.kr	https://www.safetv.go.kr	https://www.goese.kr

11) 학교안전공제회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 보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청구 절차

학교	→	청구인(학부모)	→	공제회
사고 발생 및 사고 통지		① 청구서 작성 www.schoolsafe.or.kr에 접속 후 청구서 작성 ② 제출할 서류 준비 – 공제급여청구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처방전), 통장사본,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③ 서류 제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온라인 : www.schoolsafe.or.kr에 서류 스캔본 첨부 • 오프라인 :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로 등기우편 발송		심사 및 결정

- 공제 청구 금액 50만원 이상 일때 진단서 필요, 비급여 치료의 경우에는 치료 목적으로 비급여 처방했다는 소견서 필요함 (공제회에서 정확한 심사를 위해 구비서류 이외 서류 추가 요청할 수 있음)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학교안전공제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 중 공제회에서 정한 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제외 예 :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



12) Wee 클래스, Wee센터 상담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Wee(We + Education + Emotion)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전문 상담 지원 제도입니다. Wee는 상담, 교육, 보호가 연계된 전문 서비스로, 학교 안팎에서 학생의 고민과 정서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위(Wee) 클래스, 위(Wee) 센터, 위(Wee) 스쿨, 가정형 위(Wee) 센터의 서비스는 경기도 내의 초·중·고등학생이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가 직접 신청 가능하며, 사전에 학교에 알려 동의를 얻으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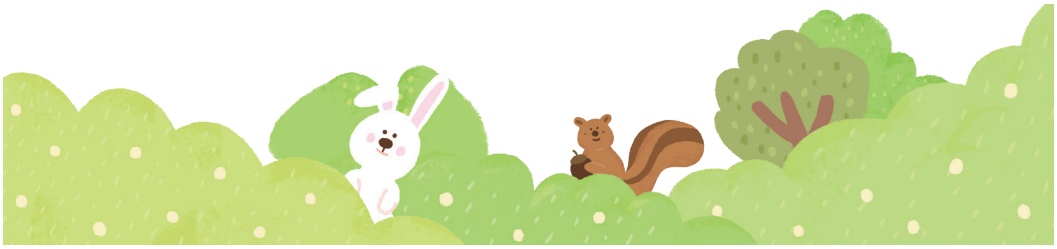
위(Wee) 프로젝트 관련 기관

구분	주요 내용
위(Wee) 클래스	• 학교 내 상담실로, 전문상담교사가 개인·집단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위기학생 초기 진단 및 Wee센터·지역사회 연계 지원
위(Wee)센터	• 교육지원청 단위 상담지원센터로 전문 인력이 상주. 위기학생 진단·상담·치료 One-Stop 지원 및 교사·학부모 자문 제공
위(Wee) 스쿨	• 장기적 치료·교육이 필요한 위기학생을 위한 기숙형 위탁교육기관. 교과·진로·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전문가 팀이 운영
가정형 위(Wee) 센터	• 가정·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기숙형 대안교육기관. 상담·보호·교육 및 진로·방과후 활동을 민간 위탁으로 운영
병원형 위(Wee) 센터	• 정신과 병원 연계 위탁기관으로 고위기 학생 치료 지원. 우울·불안, 자살·자해 등 긴급 사안 관련 학생 전문 치료·교육 제공

Tip 위(Wee)기관 신청 및 랜선 위(Wee) 클래스 이용방법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위(Wee) 기관 찾기〉
https://www.wee.go.kr/home/wee/wee02001i.do

〈비대면 랜선 위(Wee) 클래스〉
- 상담실 방문의 두려움이나 감염병, 결석 등의 이유로 대면상담을 진행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1:1 비대면 화상 상담 서비스
-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위클래스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후 상담 일정 예약 가능
  https://www.wee.go.kr/home/wee/wee02001i.do



3. 학교 행정 정보 알아보기

학교 행정 정보는 출결사항, 학교 연계 교육 활동에 관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어 학교의 운영 방향과 다양한 교육 활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학교 행정 정보가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1) 출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수업일수

학교장이 정한 '학생이 1년 중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하며, 초등학교의 수업일수는 1년 중 190일 이상입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 기관으로, 학생의 출석일수는 해당 학교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습니다.

결석, 지각, 조퇴, 결과

수업에 결석하거나 지각, 조퇴, 결과를 하게 되면 각각 질병·미인정·기타로 구분하여 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결석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 결석계+증빙서류(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제출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질병 결석은 결석계+증명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를 제출
	② 미인정 결석	출석정지, 태만,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하거나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③ 기타 결석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결과	수업 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	

출석이 인정되는 결석

천재지변이나 법정 감염병, 경조사 등으로 출석하지 못했거나, 교외체험학습 신청을 승인 받은 경우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경조사로 인한 학생 인정 결석 일수는 최대 인정 기간이며,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토요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 학생 본인	20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무엇인가요?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학생이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학교 교육과정 운영 시간과 별도로 학교 밖에서 보호자의 동행하에 실시하는 체험학습입니다.

• 운영 내용

- 학습 유형: 가족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활동 등
- 출석 인정 기간: 해당 학년도 기준 연간 20일 이내

※ 출석인정일수, 불허기간, 인정활동 유형, 신청절차 등 교외체험학습 규정을 학칙에 반영하여 운영

• 운영 절차

신청·승인	⇒	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 제출	⇒	출석 처리
• 신청서 제출 • 학교장 허가		• 체험학습 실시 ※ 학생 안전 확인		•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 출석 인정 • 서류 보관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되는 것이 아니며, 학교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외체험학습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 판단될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당교사 간 연락 체계 유지합니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반드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합니다.
-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를 통해 신청·승인 및 보고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Tip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온라인 출결 절차에 대해 알아보아요!

〈결석 신고서 제출 방법〉

1. 결석 상황 발생 시 학부모님이 등교 시간 이전에 담임 선생님께 연락
2.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결석 신고서를 작성하고 3일 이상일 경우 증빙서류를 사진이나 스캔본으로 첨부하여 학교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제출
3. 접수된 서류에 대한 담임교사 확인 후 결석 처리

신청서작성 보고서작성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작성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가입

결석 신고서 작성

〈학교장허가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제출방법〉

1. 체험학습 후 학교에서 정한 날짜 내(주말 제외), 학부모님께서 담임교사께 연락
2.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체험학습신청서 제출(학교에서 정한 날짜 이내 신청)
3. 접수된 서류(신청서)에 대한 담임교사의 승인을 받고 확인[앱 알림]
4. 교외체험학습 이후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학교 내 정한 날짜 이내 제출
5. 접수된 서류(보고서)에 대한 담임교사의 확인을 받는다.

※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는 '학부모 나이스 서비스'에서 직접입력 방법으로 직접신청한다.

3) 방과후·돌봄이란 무엇인가요?

방과후·돌봄은 학교 계획에 따라 정규 수업 이외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운영하는 학교교육활동입니다. 학생·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또는 재정 지원으로 운영됩니다.

경기형 방과후·돌봄 모델



- 학교중심형: 단위학교 중심 학생맞춤형 방과후·돌봄
- 지자체협력형: 학교(공간) + 지자체(운영) +교육청(프로그램)
- 지원센터 중심형: 교육지원청 중심 교육격차 해소 프로그램 운영
- 거점센터형: 학교· 지역 공간 등 활용, 온동네 돌봄·교육 프로그램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방과후 · 돌봄	방과후	초1~2맞춤형	초1,2학년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응, 놀이·체험, 학습 활동으로 편성·운영(매일 2차시)하는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
		초3이용권	초3학년 대상 희망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 무상 이용권 제공
		수익자 방과후	초1~6학년 학부모·학생의 수요 등을 기반으로 정규수업 외 시간에 편성 · 운영하는 수익자 프로그램
	돌봄	아침, 오후, 저녁 돌봄	초1~6학년(초1~2학년 우선) 대상으로 아침, 오후, 틈새, 저녁 시간에 쉼, 놀이를 제공하는 초등보육전담사 등이 운영 하는 무상 돌봄 프로그램

방과후·돌봄 참여 방법

- 신입생은 예비소집일에 신청 안내장이 배부됩니다.
- 재학생은 각 학교별 알리미를 통해 안내됩니다.

04 (학교협력) 소통과 동행! 교육공동체

1. 학교교육 참여하기

학부모는 아이를 교육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교육 동반자입니다. 학부모가 교육 동반자로서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 교육 동반자로서 학부모에게 필요한 역량과 책무는 무엇일까요?

가정과 학교는 함께 자녀의 성장을 응원하고 협력하는 동반자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시기는 학교생활의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시기로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와 참여는 자녀의 안정적 적응과 긍정적인 학습 경험을 돕는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학부모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군

- 자기돌봄 역량군: 부모가 학부모로서 온전히 역할을 하기 위해 자신의 내적 상태를 관리하는 능력
- 부모역할기본 역량군: 부모가 학부모로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능력
- 자녀교육 역량군: 학부모로서 올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자녀의 학습과 인성 교육을 수행하는 능력
- 학교협력 역량군: 학부모가 자녀의 성장, 발달을 위해 학교와 협력하는 능력
- 자녀자립지원 역량군: 학부모가 자녀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능력

실천하는 학부모의 책무성

실천하는 학부모는 다릅니다. 자녀의 성장을 위해 학교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고 학교교육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가정에서도 존중과 배려의 생활 태도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초등 입학 초기에는 자녀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부모'로서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학부모-교사, 소통의 다리 놓기

교사와의 소통은 자녀의 학교생활을 이해하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궁금한 점은 긍정적이고 존중하는 태도로 질문하고 자녀의 성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응원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갈등 상황에서도 비난보다는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대화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가정과 학교가 협력하는 교육 동반자

가정과 학교가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함께 자녀를 키우는 동반자로서의 인식을 공유할 때 자녀는 안정감 속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생활을 교사와 함께 응원하고 학급·학교 행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합니다.

자기돌봄과 교육 참여의 균형 잡기

학부모는 자녀의 조력자이자 스스로를 돌보는 주체적 존재입니다. 내면의 감정 상태를 관리하고 자기 역할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는 역량은 교육 동반자로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힘입니다. 또한 학교교육에 대해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 교육 활동에 협력적으로 참여합니다.

Tip 교육의 동반자로서 학교와 협력하는 방법에 대해 영상으로 더 알아보세요.

〈EBSi,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학부모는 처음이라〉
https://youtu.be/8K8zQNu5vx0?si=lQjWH-qjNGqzlUnB

2) 학부모회에 대해 알아볼까요?

학부모회의 회원은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학부모이며 임원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합니다.

학부모회 기능

-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
-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학부모 교육에 꼭 참여해야 할까요?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생활 습관 형성, 감정코칭, 의사소통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학부모 교육을 통해 성장기 자녀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참여해 보세요.

- 입학 초기 학교 설명회, 학부모 연수, 공개수업 등 참여하기
- 학교 공지나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회 활동 및 교육 일정 확인하기
- 교육청 및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참여하기

Tip 홈페이지에서 학부모 교육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https://lib.goe.go.kr/gglec/index.do

경기학부모지원센터
https://more.goe.go.kr/hakbumo/index.do

3)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자녀의 교육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가 됩니다.

운영위원 자격요건 및 임기

- 학부모 위원: 해당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 위원: 해당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 위원
  - 해당 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해당 학교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해당 학교를 졸업한 자
  -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
-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 학교 급식 등



4) 학교교육 설명회에 대해 알아볼까요?

학교교육 설명회에서는 담임교사와의 만남을 통해 교실에서의 교육 방식, 학생생활지도 방법, 준비물 안내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학교의 비전과 운영 방침, 방과후 학교 및 돌봄교실 안내 등 학부모가 알아야 할 다양한 사항이 공유됩니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학부모의 의견을 학교에 전달할 수 있어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2. 건강한 소통 함께하기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하고 즐겁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교사와 학부모 간에 원활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행동 변화나 학교생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길 때 선생님과 교육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1) 교사와 학부모는 어떤 관계여야 할까요?

서로 믿고 존중하기

서로 믿고 존중하는 관계가 시작입니다. 교사는 자녀의 학교생활을, 학부모는 자녀의 가정생활을 공유하며 신뢰를 쌓아갑니다.

문제가 아닌 성장의 과정으로 다가가기

'문제'가 아닌 '성장의 과정'으로 다가갑니다. 교사는 학부모에게 자녀의 장점과 변화, 고민을 공유하고, 학부모는 가정에서의 관찰을 나눕니다.

함께 자녀를 교육적으로 지원하기

교사와 학부모는 자녀의 성장을 함께 이끄는 동료입니다.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협력할 때, 자녀는 더욱 행복하게 자랍니다.

2) 학부모 상담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학부모 상담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녀의 강점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격려하는 기회입니다. 교사의 관찰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녀의 학교생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가정에서의 양육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에는 교사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진솔하게 소통하고 협력적인 자세로 자녀의 성장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부모 상담은 이렇게 해주세요.

① **신청하기**
가급적 일주일 전에 선생님께 연락하여 상담시간을 정해주세요.

② **상담하기**
- 자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어주세요. 선생님이 자녀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교실에서 보이는 자녀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선생님의 교육적 판단을 수용해주세요.

③ **가정과 연계하기**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자녀에게 필요한 부분을 가정에서도 지도해주세요.

상담 전, 궁금한 점 해결하기

Q1. 학부모 상담은 꼭 참여해야 하나요?

학부모 상담은 자녀의 학교생활을 교사와 공유하고, 자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소중한 기회입니다. 참여를 통해 가정과 학교가 협력하여 자녀의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Q2. 학부모 상담 기간에만 상담을 할 수 있나요?

많은 학교에서 학기 초에 학부모 상담 기간을 운영하지만 학교에 따라서는 수시상담 체제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안내된 절차를 거쳐 담임선생님과 상담이 가능합니다.

Q3.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걱정되는 부분을 미리 정리합니다. 상담 시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더욱 효과적인 대화가 됩니다.

Q4. 자녀의 부정적인 행동을 듣게 되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요?

방어적인 태도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교사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가정에서의 모습도 함께 공유하며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선생님께 어떤 점을 질문하면 좋을까요?

자녀의 수업 태도, 또래와의 관계, 학습 수준, 관심 있는 활동 등에 대해 질문합니다. 교사의 관찰을 통해 가정에서의 양육 방향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Q6. 상담 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고 자녀에게도 긍정적인 메시지로 상담 내용을 전달합니다. 이후에도 교사와 꾸준히 소통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3) 평소에 담임 선생님과는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까요?

소통 채널을 정확히 파악하기

학교에서 사용하는 공식 소통 채널(예: 학교에서 사용하는 소통 앱, e알리미, 학급 SNS 등)을 확인하고 알림 수신 설정을 합니다.

소통 시간을 고려하기

교사도 수업과 업무 중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침 시간(등교 전)이나 야간, 주말은 피하고 정해진 상담시간이나 알림장에 요청을 남기는 방식으로 연락을 합니다.

긍정적인 피드백도 전하기

문제가 있을 때만 연락하기보다 감사 인사나 수업 후 좋은 반응을 전하면 교사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MEMO

참고 문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2020). 부모-자녀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한 마음 안아주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5). 밥상머리에서 행복찾기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5). 학부모는 처음이라- 이제, 학부모.:초등학교 저학년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5). 학부모는 처음이라-도전, 학부모:초등학교 고학년

교육부(2020). 부모-자녀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한 마음 안아주기

경기도교육연구원(2024). 경기형 디지털 역량 체계 재구조화 및 교육과정 적용 방안

경기도교육청(2024). 2024 행복한 학부모 꿈꾸는 1학년

경기도교육청(2025). 2025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초등학교 안내서: 부모, 학부모가 되다

경기도교육청(2025). 2025년 체육건강교육과 정책추진 기본계획

경기도교육청(2024). 행복한 초등학교 1학년 생활

경기도교육청(2025). 2025학년도 초등 학교교육과정 편성 안내자료

경기도교육청(2025). 경기 기초학력 보장 시행 계획

경기도교육청(2025). 경기형 교육활동 보호 길라잡이

경기도교육청(2025).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

경기도교육청(2025). 새학기 학부모교육 자료집(초등학교)

경기도교육청(2025). 위(Wee) 프로젝트 학생상담 운영 및 지원 계획

경기도교육청(2025).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학교)

경기도교육청(2025). 학생생활규정 운영 매뉴얼

교육부(2022). 2022 개정 교육과정 질의·응답 자료

교육부(2025). 2025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교육부(2025).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개정판)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직업능력연구원(2024). 진로연계교육 설계를 위한 디딤돌 안내서

이인영 외(2022). 유아용 6요인 기질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발달지원학회. 제11권(2). 95-116

이주연, 정영근, 김기철, 전호재, 임유나(2023).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1).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가이드라인

교육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eblog

주요 키워드 모음

〈1부 키워드〉

스스로 하기
수업시간
쉬는 시간
급식예절
시간지키기
젓가락질
친구 관계
배움
몸 건강
마음 건강
예방접종
1학년 약속
인사
수업
하교
도서관
보건실
운동장
체육관
특별교실
급식실
국어
수학
통합교과
집중
정리정돈
식습관
손 씻기
이 닦기
화장실
생활 습관
학습 습관
독서 습관
발표
감정표현
나 전달법
긍정적인 격려
거짓말 지도
마음 신호등
학생건강검사
건강증진학교
학생건강정보센터
학교스포츠클럽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
Wee 프로젝트
교통안전
나침반 5분
스마트폰 중독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학교폭력예방교육

〈2부 키워드〉

부모 자존감
자녀 교육관
공감적 의사소통
아이 성향과 기질
디지털 시민성
밥상머리 대화
2022 개정 교육과정
1학년 교육과정
진로연계교육
입학초기 적응활동
한글책임교육
기초소양교육
난독증
학습권
다문화교육
교육활동보호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학교문화 책임규약
학교폭력예방교육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가정폭력 예방
스마트폰 과의존
안전한 학교 생활
학교안전공제회
위(Wee) 프로젝트
출결(질병결석, 출석 인정 결석)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늘봄학교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상담

2026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초등학교 안내서

부모, 학부모가 되다

총괄
이미용(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평생교육부장)
박은희(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학부모교육담당 사무관)

기획
허선영(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교육연구사)

개발위원
길수경(송안초등학교 교감)
이진명(중흥초등학교 교사)
임재일(용인흥덕초등학교 교사)
정나라(효천초등학교 교사)
최지후(안산해솔초등학교 교사)
김상민(양주도담학교 교사)

삽화디자인
박은미

검수위원
이수현(진가초등학교 교장)

발 행 일 2025. 12.
발 행 처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디자인 및 인쇄처 디자인펌킨(031-893-8315)



2026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초등학교 안내서**

부모, 학부모가 되다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LIFELONG LEARNING INSTITUTE